

碩 士 学 位 論 文

夏目漱石의 教育觀 研究

- 『坊っちゃん』, 『中學改良策』, 『愚見數則』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大 成

2006年 8月 日

《국문초록》

夏目漱石의 教育觀 研究
- 『坊っちゃん』, 『中學改良策』, 『愚見數則』을 중심으로 -

金大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鸞姬

본 연구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텍스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던 메이지 시대의 교육이념과 학제에 드러난 교육정책의 본질을 고찰하며,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이 『도련님(坊っちゃん)』(1906), 『중학개량책(中學改良策)』(1892), 『우견수칙(愚見數則)』(1895)의 텍스트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이념과 학제(學制) 및 사회적 배경 등을 고찰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고양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서구 실용주의 노선의 교육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나쓰메 소세키는 근대화에 따른 이기주의나 출세주의 등의 병폐를 고발하는 비판적 인식을 그의 텍스트 전반에 걸쳐서 표출하고 있음을 본다.

『도련님』에 등장하는 교사들을 긍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과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은 정직과 의리, 그리고 도의적인 인간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기주의적인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은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위선자로 표리부동하고, 간사하며 임기응변의 처세술이 뛰어난 권력지향의 인물들로 근대문명이 탄생시킨 ‘부도덕’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도련님은 신경질적이고 성급한 판단을 잘 내린다는 단점이 있기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는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정직성과 솔직함을 우선하여 정의감에 불타는 순진한 교사이다. 그러나 나쓰메 소세키 자신이 고백했듯이 교사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사의 자질 면에 있어서도 교육애가 부족하고, 사명감도 없어 바람직한 교사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인공 ‘도련님’과 그 주변의 인물을 통하여, 나쓰메 소세키는 그 자신이 혐오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유형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다가 올 일본의 미래 교육을 전망하고 교육계에 처방을 내렸다고 본다.

한편 학생들의 이미지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예로써 ‘메뚜기사건’ ‘튀김국수사건’ ‘수학문제사건’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는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학생상에 반하는 학생들의 비교육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나쓰메 소세키가 자신의 교육관을 직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중학개량책』 및 『우견수칙』이라는 텍스트를 면밀히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표방한 교육을 받는 당사자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그의 교육관은 『도련님』에서도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본질인 개인의 잠재력 계발은 경시되고, 교육은 지육에 편중되어 있었고, 덕육은 ‘국가에 충성심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심’을 기르는 것으로 일관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인격자보다는 유능한 자를 대우하게 됨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금력을 쥐려는 이기주의적인 세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사들의 대우에 있어서도 여러 방도의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나쓰메 소세키는 서구로부터 유입된 학교교육제도가 실용으로서의 학문,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하여 속물성, 세속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본질은 지육과 함께 덕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계발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인격을 갖춘 참다운 교육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인격주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탁월한 식견은 현시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유용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제목 차례>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메이지 시대의 학제(學制) 및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인식 ... 4	
1. 메이지 시대의 학제(學制) 및 사회적 배경	4
2.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인식	11
III. 『도련님』에 나타난 교사 및 학생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 16	
1. 교사로서의 ‘도련님’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16
2. ‘도련님’ 이외의 교사들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25
3. 학생들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39
IV. 『중학개량책(中學改良策)』 및 『우견수칙(愚見勸則)』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 44	
1. 『중학개량책(中學改良策)』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44
2. 『우견수칙(愚見勸則)』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52
V. 결론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3

<표 차례>

[표1] 『도련님』에 등장하는 교사들의 이미지 분석 내용 요약	38
--	----

I. 서론

연구자는 현직 교사로서 일본의 현재 교육이념·학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메이지(明治) 시대의 학교교육제도와 교육자들의 교육방법 및 교육철학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학교소설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했다.

일본 근대문학 중, 교육에 관계되는 작품으로는 시마자키 토오손(島崎藤村)의 『과계(破戒)』,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의 『구름은 천재이다(雲は天才である)』,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竜之介)의 『다이도오지 신스케의 반생(大道寺信輔の半生)』 외에도 많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좁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¹⁾의 텍스트로 한정하고자 한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이 근대화를 지향하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의 좌표를 설정한 지도적 인물이다. 그래서 종전까지 천엔권 화폐에 그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으며, 국민적 작가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쓰메 소세키의 텍스트를 면밀히 고찰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의 교육이념, 학제에 드러난 본질적인 교육정책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며, 또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은 현시점에서 볼 때,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그 음양을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나쓰메 소세키의 텍스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던 메이지 시대의 교육이념과 학제에 드러난 교육정책의 본질을 고찰하며,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이 『도런님(坊っちゃん)』(1906)²⁾, 『중학개량책(中學改良策)』(1892)³⁾, 『우견수칙(愚見叢則)』(1895)⁴⁾의 텍스트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나쓰메 소세키의 텍스트에 영향을 주었던 메이지 시대의 교육이념과 학제(學制) 및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배경 등은

1) 三好行雄編(1999), 『夏目漱石事典』, 学灯社.

夏目漱石(1867.2.9-1916.12.9)は、日本の小説家、英文学者である。本名は夏目金之助。漱石の名は、世説新語にある故事「漱石枕流(石に漱(くちすす)ぎ流れに枕す)」から取ったもので、負け惜しみの多いことの例えである。尚、「漱石」は当初、親友の正岡子規の筆多いペンネームのうちの一つであったが、夏目は正岡からこれを譲り受けている。

2) 夏目漱石(2002), 『夏目漱石全集2』, 筑摩書店.

『坊っちゃん(붓짱)』은 ‘붓짱’에서의 ‘짱’은 친근감을 주는 애칭이고, 『도런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귀여운 남자아이를 부를 때 ‘보야’라고 부른다.

3) 夏目漱石(1996), 『夏目漱石全集第26巻』, 岩波書店.

4) 夏目漱石(1995), 『夏目漱石全集第16巻』, 岩波書店.

『도련님』에도 여러 장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 『도련님』에 등장하는 교사들을⁵⁾, 긍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과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로 구분하여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을 고찰한다.

셋째, 나쓰메 소세키 자신이 어떠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가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1892년 동경제국대학 3학년 때 발표했던 교육학 보고서 『중학개량책』과 마쓰야마(松山) 중학교 재직 당시 『보혜회잡지(保惠会雑誌)』에 기고한 『우견수칙』을 분석하였다. 그의 교육관은 십여 년이 경과한 후에 『도련님』에 재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도련님』의 내용에 대한 인용은 치쿠마(筑摩) 서점에서 간행한 『夏目漱石全集2』(2002) 등을 텍스트로 삼아, 하서출판사의 번역서적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번역을 주로 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내부에 스며들어 있는 교육관을 분석하였고, 『중학개량책』은 이와나미(岩波) 서점의 『夏目漱石全集第26巻』(1996), 『우견수칙』은 『夏目漱石全集第16巻』(1995)의 내용을 번역 분석함으로써,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이 어떻게 작품화되어 나타나 있는가를 고찰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나쓰메 소세키의 여러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너무나도 많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나쓰메 소세키의 다른 작품에 비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애독서인 『도련님』이 발표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중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작품이다.⁶⁾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도련님』에 관련된 국내 학회지 발표논문이나 석사·박사학위논문 또한 많다.⁷⁾

金活蘭의 “明治三十九年の學校小説に関する考察-『破戒』, 『坊っちゃん』, 『雲は天才である』主人公の教育観の比較分析-”에서는 1906년(메이지 39)에 쓰여진 학교소설의

5) 교사들의 별명 : 『도련님(坊っちゃん)』은 ‘도련님’, 교장은 ‘너구리’, 교감은 ‘빨간셔츠(赤シャツ)’, 영어교사 우라나리(うらなり)는 ‘가지꼬투리’, 수학교사 야마아라시(山嵐)는 ‘고슴도치’, 미술교사 노다이코(野だいこ)는 ‘알랑쇠’로 번역하여 표현한다.

6) 岩波文庫(1953), 『読書現況調査』.

독서현황 조사에 의하면, 베스트셀러 25위 안에 무려 나쓰메 소세키의 5작품이 속해 있다. 더구나 首位 3作品은 『坊っちゃん』, 『草枕』, 『ころ』의 순이며, 『三四郎』가 11위, 『吾輩は猫である』가 12위를 점하고 있다. 고교 3년생의 98.7%가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을 읽은 경험이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 植赫建 編輯(2001), 『창간호, 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 文學研究』, 제이앤씨, pp.77-106.

“한국에 있어서 나쓰메 소세키 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물 수는 367편에 이르며, 그 순위는 『ころ』가 45편, 『それから』, 『三四郎』, 『夢十夜』가 각각 31편, 그리고 『坊っちゃん』이 15편(번역본 3, 논문 8, 학위논문 4)에 이른다.

배경과 등장인물들의 교육관을 작품별로 비교 분석하여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 하에서 형식과 규칙을 강조하는 교육자들과 신교육을 배운 젊은 교사들 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난희의 “夏目漱石의 『坊っちゃん論』-대립구도를 중심으로-”⁸⁾에서는 나쓰메 소세키가 직면한 메이지 시대의 교육 양상은 잔재주를 키우는 테크닉, 즉 인위(人爲) 내지는 작위(作爲)를 본령으로 하는 듯한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면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통찰한 나쓰메 소세키의 섬세한 신경은 빨간셔츠 일당에 대한 희극화(戯面化)라는 형태로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황호철의 “夏目漱石의 초기 작품 『도련님』 一考察 -教育者로서의 ‘坊っちゃん’을 중심으로 해서-”⁹⁾와 柳相熙의 “『도련님』을 통한 漱石의 教育觀 研究”¹⁰⁾ 등에서는, 주로 『도련님』의 성립 배경과 제작 동기나 의도에 대해서 고찰한 후, 『도련님』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도련님』에 나타나는 교사들의 교육관이나 주인공 도련님의 심리적 갈등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메이지 시대의 교육이념과 학제에 드러난 교육정책의 본질에 대한 분석이나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이 현시점에서 볼 때,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그 음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학개량책』과 『우견수칙』에 나타난 그의 교육관에 대한 분석이 아주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의 텍스트에 영향을 주었던 메이지 시대의 학제(學制) 및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도련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호작용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교사 및 학생들의 이미지를 고찰하며, 『중학개량책』과 『우견수칙』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김난희(2000), “夏目漱石의 『坊っちゃん論』-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제6집』, 제주대학교.

9) 황호철(1993), “夏目漱石의 초기작품 『도련님』 一考察;教育者로서의 ‘坊っちゃん’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여자전문대학논문집 16, 한양여자전문대학, pp.279-301.

10) 柳相熙(1986), “『도련님』을 통한 漱石의 教育觀 研究, 日語日文學研究 9”, pp.261-283.

II. 메이지 시대의 학제(學制) 및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인식

1. 메이지 시대의 학제(學制) 및 사회적 배경

에도막부(江戸幕府) 말기에 미국 등과의 외교문제의 발생 이후, 특히 근대적 장비를 갖춘 증기선이었던 구로후네(黒船)의 위력을 목격한 이후부터 일본의 막부와 여러 향(藩)¹¹⁾들은 서양의 근대적 기술을 섭취하여 군사력을 충실히 할 필요를 통감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외래문화와 문명에 대한 수용 자세는, 에도 말기까지는 일본의 고유 정신에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나 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와콘칸사이(和魂漢才)’에서 ‘한(漢)’을 버리고 서양으로부터의 학문과 기술, 즉 ‘양(洋)’의 재(才)를 배워야 한다는 ‘와콘요사이(和魂洋才)’를 내세우며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려고 결정하였다. 근대 과학의 학습도 한층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1857년 번서조소(藩書調所; 후의 開成所)에서는 천문학·지리학·물리학·화학 등 군사에 필요한 과학교육을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은 군사적 목적에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메이지 정부의 한층 더 대규모적인 서양 근대문화 섭취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데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녔다. 1862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막부의 유럽사절단에 참가하여 유럽과 러시아, 미국 등을 순방하고 난 후, 유럽과 미국의 정치·경제·역사·문화 등을 소개한 『서양사정(西洋事情)』을 발간하여 서양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에도(江戸) 말엽의 쇄국적 봉건시대는 개발론의 승리로 그 종말을 고하고,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¹²⁾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근대 일본은 메이지 십년의

11) マルチ辞典(<http://dictionary.www.infoseek.co.jp>), 2006.3.5.

幕藩体制 : 江戸幕府と、その支配下でありながら独立の領地をもつ諸藩とを統治機関とする封建的な政治体制。領国と兵農分離のもとで、幕府・諸藩が領主として、本百姓から米を主とする現物年貢を直接収奪する社会關係を基本とする。

도쿠가와 바쿠후는 봉건제도의 강화를 도모하여 쇼군(將軍)을 정점으로 하는 막번체제(幕藩体制)를 확립하고 사농공상의 신분질서를 엄중히 하였다. 전국을 200개 이상의 다이묘령(大名領)과 바쿠후 직할령으로 분할하였다. 막부·번이 영주로써, 관할지의 백성으로부터 쌀을 주로 하는 현물연공을 직접 수탈하는 사회관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12) 明治維新(메이지시대 1868-1912) 혁명에 의해 봉건적인 막부체제가 타도되고 근대적 국가가 세워졌으며 봉건적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사민평등이라는 근대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산업, 군사, 교육, 학문 분야에서는 서양 근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근대화가 추진되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관계나 가족제도, 헌법 등은 근대적이지 못한 면이 남아 있었다.

서남전쟁을 끝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부국강병, 인재양성 등에 의해 서구 문명을 섭취하였으며, 교육의 보급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켰다. 그리고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의 승리를 통한 영토 확장 등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유일한 근대 국가 형성을 성공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메이지 정부는 낡은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학제의 반포, 폐번치현(廢藩置縣)¹³⁾, 태양력의 채용 등 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와 같은 와중에서도 우대신(右大臣)이었던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전권대사로 하는 사절단 등이 구미 여러 나라에 파견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당시의 선진국으로부터 제도·기술·지식 등 제반 노하우의 도입에 열심이였는가를 극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메이지 정부의 과제는, 구미열강(歐美列強)에 대항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고, 독립국가로서 자립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징병령(徵兵令), 지조개정(地租改正), 식산흥업(殖産興業), 학제(學制)를 비롯하여,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성급한 개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의 증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각층으로부터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일본 사람들의 생활방식도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에서 쇠고기를 먹고, 커피와 빵, 맥주와 와인을 마시는 것이 문명인으로 생각되어 유행했다. 군대의 제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양복이 유행되어 관리와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중심으로 입기 시작하여 1872년에는 관리의 제복을 양복으로 정했다. 철도와 신문, 우체국과 학교, 간호사와 차장 등은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일본 근대문학의 작품 속에 그대로 묘사되어 졌다.¹⁴⁾

메이지 정부의 등용 권유를 사양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전적으로 교육과 저술 활동에만 전념하였다. 1872년부터 1876년까지 4년에 걸쳐 17편의 새로운 시대의 생각을 주창한 『학문을 권함(學問のすすめ)』이라는 책을 완결했는데, 340만 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발행 부수에 달했다.¹⁵⁾ 초편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 한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사람들의 기본권은 평등하지만 현실 사회에 현명함과 어리석음, 귀함과 천함, 가난과 부의 차이가 심한 것은 학문의 유무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학문의 중요성을 널리 국민에게 가르쳤다. 이것이 곧 『학문을 권함』이라는 책이름이 된 이유이다.¹⁶⁾ 요

13) 1871년 메이지 신정부가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의 번(藩)을 폐지하고, 현(縣)을 설치한 행정적인 개혁을 말함.

14) 赫建(1997), 『일본근대작가의 이해』, 學士院, p.27.

15) 하가 토오류 지음, 손순옥 옮김(1989), 『명치유신과 일본인』, 도서출판 예하, p.285.

16)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양문송 옮김(2004), 『학문을 권함』, 일송미디어, pp.237-238.

컨대 17편의 총론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초편은 후쿠자와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인권평등의 정신, 독립자존의 정신, 실학의 정신, 국가독립의 정신, 준법정신 등을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자와는 합리적인 사고와 생활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으며, 잘못된 관습과 미신을 없애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학문은 자칫하면 국가를 위해서라는 원대한 일을 목표로 할뿐이었는데, 앞으로의 학문은 자기 자신의 생활을 견고히 하고 자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문의 개인주의는 당시의 일본 특유의 ‘학력사회’를 만드는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일본사회의 사상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학문을 권함』은 전국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메이지 계몽기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고무했는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1876년이 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개설,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민권주의자가 부르짖는 구호가 된 것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이었다. 이 처럼 『학문을 권함』은 민권(民權) 운동의 바이블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이러한 격심한 사회의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낀 정부는 보수적·복고적인 교육방침으로 전환하여 1879년, 1880년 무렵부터 교과서 검열제도를 실시하고 자유주의적인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이 무렵의 후쿠자와 자신은 사상계의 제1선에서 후퇴한 형태로 그의 언론에는 과거와 같이 예리한 혁신성은 없어졌지만, 정부로서는 여전히 거북스러운 거물이었고 특히 게이오의숙은 반정부주의의 소굴의 하나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후쿠자와의 저서가 바람직하지 않은 교과서의 대상에 올랐던 것은 당연하다. 메이지 중기, 교육칙어의 제정 무렵부터 정부의 교육방침은 더욱 더 국가주의·군국주의 일변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후쿠자와의 저서는 희미한 과거의 고전이 되어갔으나, 사후 약 반세기가 지난 패전(敗戰) 후에는 다시 불사조와 같이 날개를 다는 시절이 도래했던 것이다. 미국의 주일대사였던 라이샤워도 ‘메이지의 많은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후쿠자와이다. 메이지 시대 지도자의 유산 중에 현대 일본에 전면적으로 적합한 사상은 후쿠자와의 사상뿐이다’라고 하면서, 『학문을 권함』을 위대한 저서라 칭송하였다.¹⁷⁾

후쿠자와는 개인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영국의 공리주의(功利主義) 사상 영향 하에 학문은 직접 일상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른바 ‘실학(實學)’을 장려했고, 개인의 자립이 국가 독립의 기

17) 위의 책, pp.253-259.

초가 되며 개인의 왕성한 활력이 부국강병의 기초라고 하여 일본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학문에 대한 사상은 나쓰메 소세키가 『중학개량책』에서 주장한 ‘교육은 국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며, 그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그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후쿠자와는 1882년에는 『시사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하면서 활발한 언론 활동을 펼쳤고, 군비 확충, 조세 증수, 관민 협조로 부국강병 하여 서구 열강의 대열에 들 것을 주장했다. 한편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한국의 유길준, 김옥균 등의 개화운동을 지원했고 『한성순보』의 발간을 도왔다. 그는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에서 일본이 비록 아시아에 위치하지만, 국민정신은 서양 문명으로 귀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조선과 중국은 악우(惡友)로 사절한다고 했다. ‘탈아입구(脫亞入歐)’라고도 표현되는 탈아론의 사상은 아시아를 버리거나 무시하고 유럽제국과 교류하자는 사상으로써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도 일본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1871년 문부성(文部省)¹⁸⁾을 설립한 메이지 정부는 이듬해인 1872년 8월, 근대적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표적인 개화정책인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 법규인 학제(學制)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포달된 ‘학사 장려에 관한 포고’는 입신·치산·창업의 실학·실용주의적 교육이념과 국민개학(國民皆學)을 목표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때의 교육이념은 부국강병책과 재산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식산흥업(殖産興業)에 두었다. 교육의 목적을 ‘입신(立身)을 기본’으로 삼아 ‘그 자산을 경영하여 생업을 번창 시킨다’는 데 두고, 개인의 완성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實學)’을 높이 평가하였다. 새로운 학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신정부는, 의무교육제를 도입하여 종래 무사계급 이상의 독점물이었던 봉건적 차별 교육을 폐지하는 사민평등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근대적인 교육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무수한 데라코야(寺子屋)¹⁹⁾가 설립되어 있던 메이지유신 직전의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취학률을 확보하고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1872년에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학제를 모델로 하여 전국을 8개의 대학구(大學區)로 나누고, 각 대학구를 32 중학구(中學區), 1 중학구를 210 소학구(小學區)로 나누어 각 인구 600인에 대해 1 초등학교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한 피라밋형의 학구제가 그 특징이며, 각 부현(府縣)에는 공립중학교를 설치하는 등 전국에 많은 학교를 세웠다. 실시 후 3

18) 한국의 문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 해당되는 국가 기관을 말함.

19) 우리나라의 서당에 해당하는 사설의 초등교육기관임.

년 후인 1875년에는 24,225개의 소학교가 설립되었다.²⁰⁾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근대적 학교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를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의 경비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때문에 교육은 교육의 수감자인 국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표방하여, 학비와 의식의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구습을 부정하였다. 이 학제의 반포는 메이지 신정부에 의한 교육정책이 위로부터의 개명정책(開明政策)이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 건설의 경비는 기본적으로 시정촌(市町村)에서 부담하였다. 도시의 정(町)에서는 정(町)의 자치조직이 소학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등 학제에 대응하여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낙후된 농촌에서는 소학교 건설비용이 곧바로 농민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일손인 자제를 학교에 빼앗기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수업료와 학교건설비를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모든 일본 국민이 메이지 신정부에서 내 놓은 새로운 교육정책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고,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비교육 원칙은 지방세의 증가, 기부금 부과, 수업료 징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방의 각 지역에서는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초등학교를 파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당시 일본 국민들 가운데는 ‘이 바쁜 때에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인가?’ ‘학교를 세우는 돈이다. 이번에는 수업료다. 학교는 몹시 돈이 들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학교를 허물어 버리겠다’ 등 신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1877년경까지 일본 각 지역에서 일어났다.

개명정책(開明政策)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메이지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1879년의 교육령에 의해 학구제가 폐지되고, 교육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옮겨 국가 통제를 완화하는 개정이 단행되었다. 여기에서는 4년간에 걸쳐 16개월의 보통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로 하였다. 교육령은 학교교육제도의 대강을 정한 법령으로 학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설립이나 교육방침을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각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취학률이 감소하고 또한 너무 자유주의적이라는 비난도 높아져, 1880년의 개정교육령 이후 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교육목적도 급속히 국가주의화 되었다.

1879년에는 미국을 모델로 한 교육령을 공포하여 실용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산시로』의 주인공 오가와 산시로는 1877년(메이지 10년) 출생이므로 미국식 학제에 의한 실용주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교육

20) 한영혜·정진성(1999), 『일본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pp.34-35.

을 받은 학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도련님』 제10장에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임인 축승회(祝勝會)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에서의 학교교육은 인간의 품성을 높이는 인격도야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목들을 양성하는 거대한 공장²¹⁾, 실용주의, 공리주의를 가치로 한 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새 교육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을 지니게 했다. 『학문을 권함』의 영향 등으로, 이른바 ‘학력 중시’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도련님』 등에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도련님이 전 재산을 학자금으로 삼아 출세를 위하여 졸업장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은 그 당시 ‘학력 중시’ 풍조가 얼마나 강했던가를 증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카기 후미오(高木文雄)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지극히 공리적(功利的)인 교육관’이 작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논하고 있다.²²⁾

메이지 정부는 군인칙유(軍人勅諭, 1881년), 부현제·군제(府縣制·郡制, 1886년)의 제정 발표, 일본제국헌법(日本帝國憲法, 1889년) 및 황실전범(皇室典範, 1889년)의 제정과 교육칙어(敎育勅語, 1890년)의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메이지 천황²³⁾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독자적인 입헌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제국헌법에서도 왕의 국가통치 대권·육해군 통수권을 명기하였고, 교육칙어에서는 왕이 국민도덕의 밝힘으로써 천황제국가를 유지하는 2대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청일·러일 전쟁의 승리는 왕에 대한 국민의 숭앙(崇仰)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하였다.

1886년의 소학교령(小學校令)에서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4개년을 의무제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취학연령 아동의 취학률이 90%를 넘는 것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청일전쟁 후인 1900년 8월에 소학교령(小學校令)이 개정되었으며, 의무 취학연한을 연장·강화하였다.²⁴⁾ 1903년에 국정교과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때의 취학률은 98.23%(남자 98.8%, 여자 97.62%)이었다.²⁵⁾ 1908년에는 소학교 의무교육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 메이지정부는 소학교의 교육내용에도 관여

21) 芥川竜之介全集刊行会(1979), 『芥川竜之介全集』, 岩波書店,

芥川竜之介의 『大道寺信輔の半生』에도 反軍國主義, 反國家主義, 自由主義的인 견해가 일관되어 있다. 『大道寺信輔の半生』에 나오는 학교의 이미지는 두려움과 혐오, 저항, 독기, 증오, 체벌, 어두컴컴함… 등 부정적인 이미지 표현으로 일관되어 있다.

22) 竹内洋(2006), “明治學校システムと漱石”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漱石; 世界文明と漱石』, 學燈社, p.14.

23) 徳川慶喜의 大政奉還(에도막부가 정권을 메이지 천황에게 이양한 일)을 받아들여 1867년에 즉위한 메이지 天皇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근대 일본의 발전에 힘썼다.

24) 정현숙,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메이지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p.11.

25) 權赫建(1997), 앞의 책, p.31.

하여 학교 수업을 통해 천황제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문 연구와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1877년(明治 10)에는 동경제국대학(현재의 東京大學)이 설립되었다. 이어 1897년에는 경도제국대학(현재의 京都大學), 1900년에는 구주제국대학(현재의 九州大學), 1907년에는 동북제국대학(현재의 東北大學), 1918년에는 북해도제국대학(현재의 北海道大學) 등 제국대학들 전국 지방에 설립되었다. 나쓰메 소세키가 대학예비생 시절의 예비문은 제일고등중학교(第一高等中學校)였는데, 이 시기 커다란 교육개혁이 이루어 졌다. 초대 문부대신이 사법성(司法省)의 법학교(法學校)와 공무성(工部省)의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 등을 동경대학에 흡수하여 법의공문리(法医工文理)의 5분과 대학을 포함하는 종합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제국대학이다. 제국대학은 유력한 고등교육기관을 흡수한 것뿐이 아니었다. 제국대학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고급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귀족의 특권대학이었다. 제국대학이 ‘관리제조학교’가 되었을 때 그 전신이었던 동경대학은 이른바 ‘학술의 부(府)’였다.²⁶⁾ 구주제국대학과 동북제국대학이 몇 명의 여학생을 정규로 입학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제국대학에서는 여학생을 1924년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수한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 당시에 설립된 국립 제국대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국립인 제국대학 외에 이 당시에 사립대학도 설립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1858년에 경응의숙(현재의 慶応大學)이라는 일본 최초의 사립대학을 세워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시켰으며, 크리스티고 지도자였던 니이지마 조(新島襄)는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學)을 설립했다.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1882년에 동경전문학교(현재의 早稲田大學)을 설립하여, 각 대학은 독특한 기질을 갖춘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²⁷⁾ 또한 여성의 고등교육을 위해 동경여자사범대학(현재의 お茶の水女子大學) 등이 설립되었다.

위와 같이 메이지 정부는 서양화(西洋化) 정책을 통해 교육에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했다. 메이지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의 덕택에, 일본 국민들이 의무교육 등을 통해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신문의 보급과 함께 일본 근대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후 독특한 ‘학력중심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국가주의를 지

26) 竹内洋, 앞의 책, p.13.

27)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는 데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東京專門學校(1902년에 早稲田大學으로 개칭됨)을 설립했다. 일본의 정치계와 문화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와세다대학은 식민지시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였던 학교로도 유명하다.

향하여, 1890년에는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의 교육방침을 나타낸 교육칙어가 반포하여 일본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다. 315자로 되어 있는 교육칙어 속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법을 준수하는 등의 일본 국민이 실천해야 할 14가지의 덕목이 나열되어 있었다. 일단 나라가 위험한 사태에 직면 하면, 온 몸을 바쳐 천황을 도와야 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으며, 당시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외어야 했다. 문부성(文部省)은 교육칙어 등본을 전국 학교에 배부하여, 축제일의 의식 행사시에 학교장들에게 봉독시켰다. 이듬해에는 천황·황후의 초상화에 배례(拜禮), 교육칙어의 봉독(奉讀), ‘기미가요(君が代)’의 제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학교축일대제일의 식규정(小學校祝日大祭日儀式規程)’을 제정하였다. 그 보급에 최대의 역할을 한 것은 소학교였고, 축제일 의식을 정점으로 하면서 수신, 국어, 역사, 창가 등의 각 교과에서 일상적으로 교육칙어의 정신을 철저히 하는 지도가 이루어졌다.²⁸⁾

결과적으로, 1879년 학제의 공포는 문명개화와 더불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지식, 기술의 습득이 중시되었으나 자유민권운동의 고양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이것을 직접 탄압함과 동시에, 두 번 다시 자유민권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인의충효(仁義忠孝)를 중핵으로 한 덕육교육에 그 중요성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부국강병과 천황 중심의 메이지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현대의 교육이 각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방침을 그대로 학생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역할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2. 나쓰메 소세키의 시대상(時代相)에 대한 인식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 하는 모순을 배태하고 있는 메이지 시대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인식은 작가로서, 더 나아가 사상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작품을 통하여 그의 철학을 외현화하였다. 그가 배제했던 시각을 통해 일본 근대정신의 확립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라는 타자(他者)²⁹⁾의 올바른 인식, 식민지였던 야만의 조선이야말로

28) 島崎藤村의 『破戒』에 나타나 있는 小學校 天長節을 기념의식의 한 장면에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9) ‘타자’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경계가 모호하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겉도는 자’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일방적 위대성으로부터, 그를 견져내는 상대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나쓰메 소세키 이후의 작가들의 내면을 정형화시켜 일본의 주변부라는 일탈의 장소로 인식되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주제인 인간의 본성을 다룸으로써 현재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한의 여기저기(滿韓ところどころ)』(1909.10.21-12.30 아사히신문 연재)는 그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현시점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이며 매우 조야한 작품이 되고 말았다.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드러낸 부정적 시선은 그에 대한 기대감의 배반일지도 모른다. 그 까닭은 근대 일본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대외 팽창주의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와는 달리, 소세키 문학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이미 길들여진 ‘위대성’에 대한 신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³⁰⁾

나쓰메 소세키는 『만한의 여기 저기』에서 ‘...일본인은 진취적 기상을 가지고... 일본인은 믿음직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에 반해 중국인이나 조선인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국가의 도덕이란 개인의 도덕보다 저급한 것이라는 개인주의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³¹⁾ 식민지 국민이 처한 ‘절망’적 현실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무감각은 가히 ‘폭력’에 가깝기조차 하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그를 판단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만한(滿韓) 여행 이전까지는 천황제 제국주의를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작품과 연설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일본 사회의 걸치레 문명개화를 에돋코(江戸子)적 정의감과 결벽으로 야유하고 비판하여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³²⁾ 그러나 박춘일은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소세키의 한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이후의 소세키가 그 자신이 가진 근대적 지성을 당시의 천황제 국가 기구나 침략적인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을 대는 일이 없고, 오로지 인간의 내부, 그것도 에고이즘이나 심상풍경을 향해서만 칼을 대며, 어찌할 수도 없는 인간의 추악함의 ‘벽’을 몇 겹이고 만들어간 것도 이런 위치에서의 발상과 내부로는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만한(滿韓) 여기저기』는 그런 도정으로 가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30) 김난희(2000), “夏目漱石의 『坊っちゃん』論-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5.

31) 윤상인(1999), “<나쓰메 신화>와 문명비평-미화와 은폐의 구조”, 『역사 비평 48호』, p.347.

32) 유상희(2001), 『나쓰메 소세키 연구』, 보고사, p.157.

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³³⁾

나쓰메 소세키는 만한 여행 이후에도 정부나 사회를 비판한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그것은 오직 개인적인 일기나 잡기(斷片)에만 의존하였다. 그는 이런 작가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철저히 말살된 천황제 제국주의 치하에서도 ‘말매금지 처분’ 한 번 당한 일 없이 문명을 유지하며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련님』 그 자체에서는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말은 일언반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일본의 대외 확장 정책에 관한 한 무관심했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던 일본인의 일반적인 이중적인 시대의식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제국주의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지식인으로 폄하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메이지 시대의 학교교육이 얼마나 교육의 본질에 위배되고 있는지 그 비교육적 측면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제도권에서의 근대적 교육이 인성 함양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간의 심성을 타락시키고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퇴색시키는 술수를 전수하는 비교육적 측면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메이지 시대의 제도권에서 실시된 근대교육은 인성의 함양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심성을 타락시키고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퇴색시키는 모습이 들어 있다. 개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가를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외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인성 함양에는 반하는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으로 볼 때 당시의 교육이 개인의 행복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메이지의 근대화를 지향한 교육은 정부의 시책이고 국책교육이므로 다분히 작위적(作爲的)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국가의 외형적 발전을 위한 필요 악적(惡的) 요소가 있었으며, 인간 개개인으로 볼 때는 행복의 증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패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획을 긋고자 하는 위대한 메이지의 시대 정신에 나쓰메 소세키는 열광하기는커녕 하나의 병적 징후로서 당대를 고발하는 감이 든다. 그러나 당사자인 나쓰메 소세키 자신이 속한 계층은 중인층(中人層)으로서 메이지 시대라는 시대적 특수(特需)가 없었더라면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시대의 병리적 현상을 고발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이것이 메이지 시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혜택을 입은 시대에 대한 보은(報恩)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면이 다른 작가보다도 두드러진 나쓰메 소세키

33) 朴春日(1985),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来社, p.87.

문학의 특징으로 거론하기도 한다.³⁴⁾

나쓰메 소세키의 『우견수칙』이란 글에는 “이상(理想)은 식견에서 나오며, 식견은 학문에서 나온다. 학문을 해서 인간이 고양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무학으로 있는 편이 낫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인격주의적 교육관이 표방이며 『도련님』에서 도련님 선생님 안에 구현되고 있다.³⁵⁾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제도권의 교육으로 배출된 사람들은 교육의 근본을 망각한 경조부박(輕佻浮薄)한 지식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어버린 교육의 실태를 보는 것 같다. 이미 학교는 수신의 장이 아닐뿐더러 지식을 생산하여 권력을 다루고 있다. 권력은 위에서의 억압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어서 이성으로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1908년 8월, 와카야마(和歌山)에서 학습원(學習院)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현대 일본의 개화(開化)”라는 주제를 통해 안이한 서구 수용에 의한 일본의 근대화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³⁶⁾ 나쓰메 소세키의 문명비판의 대상이 되는 메이지의 시대정신이 문명개화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명개화의 모델은 서구의 근대문명이고, 그것의 경제적 토대는 자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금전의 가치를 최고로 한다. 따라서 소세키의 문명비판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야기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일본 국민의 자기정체성의 상실을 우려한 것이다. 여기에 자기들이 서 있는 시대적 지평을 통찰하는 사상가로서의 나쓰메 소세키의 탁월함이 있다고 본다.

『도련님』에서의 도련님 선생은 시코쿠 시골 중학교에서 동료들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서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인들과의 대립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현실에서 목도하게 되는 비인격적인 인간 유형은 교감 빨간셔츠와 같이 비일비재하다. 부조화한 인간관계, 알력, 불목, 이해타산에 의해 이합집산 하는 관계가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빨간셔츠는 도련님에게 ‘학교라는 사회는 나름대로의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담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적응하기 어렵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용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련님은 ‘정직하게 살면 누구 나를 이용하려 해도 두렵지 않다’고 대응하면서, ‘간혹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세상물정 모르는 도련님이니 어린애 수작이니 바보 같다느니 하면서 경멸한다. 그렇다

34) 김난희(2000), 앞의 책, p.5.

35) 金鸞(2003), ‘아쿠타가와(芥川竜之介) 연구-他者/他者性を 중심으로-’, 中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95-196.

36) 김난희(2000), 앞의 책, p.9.

면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법이라든가 사람을 믿지 않는 피라든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술책 같은 것을 가르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정직함과 순수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가식적인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순수하고 정직한 인간은 막연하나마 참에 갈등을 느끼게 된다. 나쓰메 소세키는 빨간셔츠와 같은 속물들은 참된 진수를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쓰메 소세키는 작중 인물 기요(清)처럼 제도 속에서의 교육이 부재하거나, 도련님처럼 받았다 하더라도 수재형(秀才型)이 아닌 평범한 교사를 친근하고도 애정 어린 눈으로 형상화 해 냈다. 그는 중학교라는 근대적 제도로 대표되는 근대의 산물에 의탁해, 그것을 구성하고 영위하는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해서 신랄한 풍자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명 전반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직면한 메이지의 교육 양상은 잔재주를 키우는 테크닉, 즉 인위 내지는 작위를 본령으로 하는 듯한 실용주의를 표방한 만큼 면모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통찰한 나쓰메 소세키의 섬세한 신경은 이러한 양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빨간 셔츠 일당에 대한 희극화(戲面化)라는 형태로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³⁷⁾

나쓰메 소세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자연처럼 꾸밈없이 저절로 되어 가는 자연의 질서를 숭상한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근대화의 여러 단계 중 하나로서의 제도에 의한 교육은 인간의 품성을 높이는 인격도야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목들을 양성하는 거대한 공장이었으며 실용주의를 배경으로 한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다 보니 메이지 시대의 학교는 당연히 출세를 위한 처세를 가르치는 곳, 출세를 위해 때로는 비열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역기능으로 내비친다. 나쓰메 소세키는 과도기에 시대의 도의(道義)에 대해 깊이 숙고한 후 이익사회 지향의 보다는 인격사회 지향 쪽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도련님』은 권선징악의 형식으로 표현했으나 자본주의의 유입이라는 도도한 문명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쓰메 소세키는 간파하였다.

실용으로서의 학문,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해 가는 속물성, 세속성이 서구로부터 유입된 제도로서의 교육의 개념이라면 일본의 전통적 교육보다 하등한 퇴보된 개념의 교육으로 본 것이다.

결국 나쓰메 소세키는 메이지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메이지 사회라는 문명개화의 부자연스런 발전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7) 위의 책, p.2.

Ⅲ. 『도련님』에 나타난 교사 및 학생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도련님』에 나타난 교사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과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이란 정직과 의리, 그리고 도의적인 인간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룹(도련님, 고슴도치, 가지꼬투리를 말함)을 말하며,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이란 근대 문명의 세례를 받은 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룹(교장 너구리, 교감 빨간셔츠, 알랑쇠를 말함)을 말한다.

1. 교사로서의 ‘도련님’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도련님』은 마쓰야마(松山) 중학교에서의 자신의 교사 근무 체험을 바탕으로 쓴 초기 대표작으로써,³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처럼 권선징악과 이상을 담으면서도 평이명석(平易明皙)한 풍자와 유머가 돋보여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주인공 도련님의 등장 시점과 인칭은 24세의 ‘나(おれ)’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마쓰야마 중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도쿄로 돌아와 현재 가철(街鉄)³⁹⁾의 기수(技手;技員) 신분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학교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1895년(메이지 28년) 동경고등사범학교와 동경전문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도련님』의 주인공처럼 동경을 떠나 시고쿠의 마쓰야마 중학교의 촉탁교사로 부임한다. 교직원 중에서 학사는 나쓰메 소세키 외에 이학사였던 ‘빨간셔츠(교감)’가 있었다. 나쓰메 소세키는 골동품상에서 하숙도 했고 온천에도 두세 번 갔었다고 한다. 그 해 7월에는 마쓰야마 연대 장병을 환영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나갔다가 귀로에 애히메현심상사범학교 학생들과의 사이에 난투가 크게 벌어져 사쿠라이(櫻井)라는 교사가 사범학교 학생에게 구타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을 통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을 설정해 놓고 자신의 삶과 시대를 외현화하고 있다. 대쪽 같은 성격의 교사가 시골 중학교에 부임하면서 교감을 비롯한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다가 결국 도쿄로 돌아간

38) 나쓰메 소세키는 마쓰야마 중학교에서 1895년 1년간 근무하고, 다음 해 4월에는 구마모토(熊本)의 제5고등학교 강사로서 전임한다. 『도련님』의 배경이나 인물도 이 1년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썼다. 1906년 4월에 『도련님』을 『호토토기스』에 발표하였다.

39) 東京市街鐵道株式會社の 약칭이다.

다는 내용이다. 비열한 인간들의 아이러니한 대치 및 그들과 좌충우돌하는 도쿄의 신참내기 선생의 세상 체험담인 것이다. 인간의 경우는 시골 중학교를 둘러싼 인물들에 대한 풍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편협한 테두리 속에서의 의식 및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위 인텔리로 자처하는 고국 사람들에 대한 메타포임과 동시에, 메이지의 경조부박(輕佻浮薄)한 지식인들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거센 저항감으로서 읽어낼 수 있다.⁴⁰⁾

주인공인 도련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치밀하지 못하고, 도시 출신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의 소유자이다. 초임교사로서 부임해 간 학교의 교사와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에돗코(江戸人)로 묘사된다. 에돗코(江戸人)란 에도에 사는 촌닌(町人)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사에 구애받지 않고 의지와 기개에 찬 의협심을 뽐내는 반면 성급하고 경솔하다는 말을 듣는다.⁴¹⁾ 도련님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신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おれは嘘をつくのが嫌いだから (第2章)
 성급하고 성깔 있는 기질
 せっかちで肝癪持ち (第2章)
 나는 담력 있는 사나이는 못되지만, 단념하는 것은 꽤 잘하는 인간이다.
 あまり度胸の据った男ではないのだが、思ひ切りは頗るいい人間である。(第3章)
 나는 용기가 있는데 반해 지혜가 부족하다.
 おれは勇氣のある割合に知恵が足りない。(第4章)
 억지가 센 남자
 負け惜しみの強い男 (第9章)
 나는 성급한 성질이기 때문에
 おれは性急な性分だから (第11章)

도련님은 무뚝뚝하고 무모하며 성질이 급하고 막무가내인 이기적 성격이지만, 거짓말을 싫어하여 거짓 없고, 순수함 그대로의 어린애 같고, 그의 의식은 세계나 주변을 향해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자기 지향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아래와 같은 기요(清)의 말에 의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무모한 성격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손해만 보고 있다.
 親譲りの無鉄砲で小供の時から損ばかりして居る。(第1章)

40) 김난희(2000), 앞의 책, p.4.

41) 三好行雄編(1999), 앞의 책, p.82.

도련님은 대쪽 같은 성품이지만, 지나친 성깔 있는 기질 때문에 염려가 된다.
坊っちゃんは竹を割った癖な気性だが、只肝癪が強過ぎてそれが心配になる。(第2章)

도련님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무모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주인공의 무모한 행동은 가족이라는 그룹으로부터의 소외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⁴²⁾는 견해도 있다. 그의 활기찬 말투나 명랑한 걸모습, 특히 자기 지향적 성격 등은 이러한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자신만의 탈출구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처럼 주인공의 ‘무모한 성격’은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어두운 고립적 위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⁴³⁾ 이처럼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곧은 성격으로 늘 사람들과 부딪히며 조금씩 사회 생활을 배워나가게 된다. 특별한 생각 없이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도련님은 비굴함이나 유연성 또한 없다.

도련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올바른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처리하고 만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자기 자신만의 만족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부모님은 언제나 형만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그 기대감 못지않게 행동하고 있지만 도련님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며 항상 그와 반대의 길을 간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없었지만, 하녀 기요(清)에게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데 도련님에게도 청년기에는 눈앞에 찾아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에게 600엔을 받았을 때는 혼자 남겨진 자기 자신의 장래의 문제를 가장 깊이 생각했던 때가 아닌가 싶다. 그 600엔을 셋으로 쪼개서 3년간 공부를 하는 선택을 하고 졸업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된다. 도련님은 물리학교의 3년간을 꾸중은 한 마디도 들은 일이 없다. 싸움도 않고 지낸 이른바 ‘모범생’이었다. 도련님의 생애 중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시고쿠 지방의 중학교로 부임하게 된다. 아무런 장래와 계획도 없이 다시 무모함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부임하고 나서의 첫 인상으로 ‘야만인들이 사는 고장’이라고 느끼고 시골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냥 모든 것을 비판하고 늘 비뚤어진 시각에서 처리한다. 부임지에 도착해서 보는 모든 환경에 대한 시각은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도시

42) 相原和邦(1982), 『日本の近代文学(1)-漱石の表現方法』, 有精堂, p.27.

43) 주인공과 달리 실업가 지방생인 형은 자신에 몰두하기보다는 주변과 나아가서는 세계에 더 가치를 두는 외부 지향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냉엄하게 현실에 부응해 나가는 인물로 그 시대의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에 살다가 시골마을에 오면 속박에서 벗어난 싱그러운 생각도 할 수 있고 도시에
서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라든가 또는 초임교사로서의 최초의 지방이라는 설레이
는 마음에 모든 게 신기롭게 보여야 되는 게 보통 일 터인데 도련님은 오는 순간
부터 모든 게 불평불만이며, 매사에 시골과 도시를 비교하며 시골에 대한 모든 것
을 비웃는다. 심지어 시골 자체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을 겪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웃는다.

특히 ‘메뚜기사건’ ‘메밀국수사건’ 등 중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이 이어진다. 그것
을 친절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중학생 정도
야 비위를 맞춰가면서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고슴도
치 선생에 대한 험담을 그냥 믿고 곧바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솔직함은 거짓 없고
계산적이지 못한 도련님의 성격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일침을 가
하는 듯하다.

『도련님』 2장부터 전개되는 주인공 도련님과 학생 사이의 대립은 이를 통해
당시 학교교육을 비판하려는 나쓰메 소세키의 비판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으나 도련님은 동경 출신으로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시고쿠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부임한다. 그는 정의감 넘치고, 순진한 인물이기는 하
지만, 바람직한 교사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 역시, 도련님을
정직하고 순수한 인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나는 교육자로서 책임하다고 여겨지는 ‘너구리’나 ‘빨간셔츠’ 보다도 부적임적이라고
여겨지는 ‘고슴도치’나 도련님을 사랑한다.

僕は教育者として適任と見做される狸や赤シャツよりも不適任になる山嵐や坊っちゃんを愛し候⁴⁴⁾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쓰메 소세키가 도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교육자로 보고 있지는 않다. 도련님은 교사가 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학한 것이 아니고 형이 준 돈으로 아무 목적 없이 물리학교에 진학하
였다. 교사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사의 자질 면에 있어서도
무척 부족함이 많은 인물이며, 자신이 교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각도
없으며 사명감도 없다.

나는 3년 동안 공부는 했으나 사실은 교사가 될 생각도 시골로 갈 의사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 이외에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도 없었으므로, 이 얘기를 들
었을 때, ‘가겠습니다’하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이것도 물려받은 무모한 성격이 화가 된

44) 『夏目漱石全集第三卷』, 岩波書店, 1981, p.337.

것이다.

おれは三年間學問はしたが裏を云うと教師になる氣も、田舎へ行く考えも何もなかった。もっとも教師以外に何をしようか云うあてもなかったから、この相談を受けた時、行きましようか即席に返事をした。これも親讀りの無鉄砲が祟ったのである。

시골 중학교의 초임교사로서 부임하는 동기에 대한 표현을 보면, 나쓰메 소세키는 주인공을 통해 자신이 교사가 된 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도련님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세상에 나와 결국 교사가 되었다기보다는 교사로 되어져 버렸던 것이다. 스스로 자진해서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피처로서 아무생각 없이 교사직을 맡게 된 것이다.

그때의 나는 대학을 졸업할 직전까지 무엇을 하며 먹고 살면 좋을까 몰랐을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하숙비가 들어 올 리도 없고(중략)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 세상에 나와 결국 교사가 되었다기보다는 교사로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其時分の私は卒業する間際まで何をして衣食の道を구講じていいか知らなかった程の迂闊者でしたが、さていよいよ世間へ出て見ると嚮手をして待っていたって、下宿料が入ってくる訳でもないで(中略)私はそんなあやふやな態度で世の中へ出てととう教師になったというより教師にされてしまったのです。45)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련님은 3년간 물리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에 수학교사가 되어 시골중학교에 부임하지만, 그다지 교사로서의 교직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인물로 등장한다. 학식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데다가 학생과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고, 엄매이기 싫어하는 한편, 1개월도 못되어 제멋대로 퇴임해버리는 등 책임감 또한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에 대한 이해심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결코, 제대로 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인물이다. 교직원들과의 인화 단결에 힘쓰거나, 열과 성으로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모습이 아니며, 또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거나 지혜와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사들의 일반적인 모습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도련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교직원들의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순수 정직하며 정의감에 불타는 용기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동료교사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에서 출세와 물질에 연연해하지 않는 대장부다운 기개를 엿볼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그러한 당시의 교육계의 현실을 경험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45) 夏目漱石(1979), “私の個人主義”, 『夏目漱石全集(10)』, 筑摩書房, p.125-127.

에 도련님과 같은 주인공을 탄생시켜, 그 당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교사가 된 교사들과 그들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현장 등을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감 빨간셔츠의 계약에 의해 동료교사인 훗타(堀田)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자, 자신도 사표를 쓴다. 관리직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는 강함을 가진 교사이며, 타자로부터 감시되고 있는 압박감, 교사라고 하는 걸치레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저항한다. 교장의 형식주의적인 교육방침에 비판하는 근대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정의에 가치기준을 두는 주인공은 교사인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학교조직으로부터 이탈되어 간다. 도련님은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출세를 위한 이력(履歷)보다도 인간적인 의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의파이다.

“훗타’ 선생에게는 (사표를) 내라 하고, 제게는 내라고 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학교의 사정이…” “그 사정이란 게 틀려먹었어요. 제가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훗타’ 선생 역시 사표를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설명하기가 곤란하지만… ‘훗타’ 선생이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생은 사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과연 ‘너구리’다.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도 침착함을 가장하고 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저도 사표를 내야지요. ‘훗타’ 선생 혼자 사직하게 하고, 제가 천연덕스럽게 머물러 있을 줄로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그런 몰인정한 태도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훗타’ 선생도 가고 선생도 가버리면 수학 수업은 전혀 못하게 되고 마니까요.” “못하게 되건 말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조금쯤은 학교의 사정도 살펴 주면 좋지 않은가요? 그리고 부임해 와서 한 달이 될까 말까 하는데 사직을 했다고 하면 선생 이력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력 같은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력보다 의리가 중합니다.” “그야 그렇고말고요. 선생이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도 조금은 생각해 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선생이 꼭 사직을 하겠다면 해도 좋지만, 대신 후임자가 올 때까지라도 좀 일을 해주세요. 어쨌든 집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堀田には出せ、私には出さないで好いと云う法がありますか。』 『それは学校の方の都合で……』 『その都合が間違ってます。私が出さなくて済むなら堀田だって、出す必要はないでしょう。』 『その辺は説明が出来かねますが…堀田君は去られてもやむをえんのですが、あなたは辞表をお出しになる必要を認めませんから。』 なるほど狸だ、要領を得ない事ばかり並べて、しかも落ち付き払ってる。おれは仕様がなから『それじゃ私も辞表を出しましょう。堀田君一人辞職させて、私が安閑として、留まっていられると思っていられさるかも知れないが、私にはそんな不人情な事は出来ません。』 『それは困る。堀田も去りあなたも去ったら、学校の数学の授業がまるで出来なくなってしまうから…』 『出来なくても私の知った事じゃありません。』 『君そう我儘を云うものじゃない、少しは学校の事情も察してくれなくっちゃ困る。それに、来てから一月立つか立たないのに辞職したと云うと、君の将来の履歴に関係するから、その辺も少しは考えたらいいでしょ。』 『履歴なんか構うもんですか、履歴より義理が大切です。』 『そりゃごもっとも—君の云うところは—ごもっともだが、わたしの云う方も少しは察して下さい。君が是非辞職すると云うなら辞職されてもいいから、代りのあるまでどうかやってみて下さい。』 とにかく、うちでもう一返考え直して下さい。(第11章)

도련님은 작품 속에서 결코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실교육의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그 부당함과 문제점을 많이 깨닫게 된다. 교장이 내세우는 교육계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관리자에 대해서도, 학생들에 대해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는 강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대목은 그가 교사로서 부임하던 날, 교장이 교사로서의 사명감 등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자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만다.

도련님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걸보기에는 다정해 보이지만 편 가르기를 좋아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빨간셔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너구리’ 교장 선생님, 강자들에게 아침만하는 주인공이 ‘알랑쇠’라는 별명을 지어준 미술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 ‘가지꼬투리’ 선생, 사나이답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고슴도치’ 수학 선생님 등과 여러 에피소드에 휘말려 들지만 자신만의 양심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지켜나간다.

나쓰메 소세키는 ‘정(正)’의 측면에 서 있는 교사(도련님, 고슴도치, 가지꼬투리, 기요 등)와 ‘반(反)’의 측면에 서 있는 교사(빨간셔츠, 너구리, 알랑쇠, 형 등)들과의 대립구조를 통해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간접적으로 작품 속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이 서로 상충되는 등장인물의 대립으로 ‘정’과 ‘반’을 대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도련님을 아직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아이 같은, 그리고 정의감 넘치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확연하게 구별하는 전형적인 ‘정’의 인물로 등장한다. 그에 반해 ‘반’은 나쓰메 소세키가 우려하는 인간상, 즉 갈수록 냉정해지고, 자신의 출세만을 도모하며, 남과 배격하고 이 사회를 경쟁사회로 이끌어갈, 작가 자신이 혐오하는 인간상을 대변한다. 작가는 이 두 측면에서의 인물들을 대립시킴으로써 현재 사회의 인간들이 급속한 사회의 흐름에 휘말리면서 점차적인 가치관 변화를 통해 우리가 점점 긍정해야할 인물에서 멀어지며, 부정해야할 인간상에 다가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상물정도 잘 모르고, 자존심은 세고, 생각은 엉뚱하며 나름의 정의감과 철학이 대단한 이 도련님은 그야말로 ‘도련님’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캐릭터 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도련님의 주 무대인 학교는 사회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그 완벽하게 재현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어른들과 어리고 골치 아픈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나름의 거대한 화두를 몸으로 겪는 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정부 ‘기요’의 도련님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도련님은 비록 보는 사람은 위태위태해도 한 번도 기죽지 않는다. 눈치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흥분하면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교장이나 학생들과의 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남 일에 끼어들어서 학교까지 때려치우는 도련님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풋내기로 보이겠지만 고루한 가치관의 속물보다는 사 고몽치의 우직한 풋내기가 좋다. 도련님이 크게 출세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기요가 학교까지 그만둔 도련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믿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면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막부 시절을 살았을 기요에게 도련님의 밝은 우직함은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의 밝은 희망이었을 것이다.

『도련님』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탄생하여 주관적이지만, 개인의 좁은 체험과 인생 묘사에 안주하지 않고 깊은 사상과 사회 비판을 수반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본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을 그리고 있으며, 교육자로서 책임자인 너구리와 빨간셔츠 보다는 부적합한 고슴도치나 주인공을 사랑한다고 작가는 밝힌다.

시골 중학교에서의 짧은 시간에 도련님에게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낮선 고장에서 그것도 단 혼자서만 견뎌야 하는 것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 도련님은 그럴 때마다 기요를 떠올린다. 항상 대쪽 같고 좋은 성격이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신출세하여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믿고 있으며 도련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기요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집고 기요가 있는 세계로 돌아간다.

도련님 역시 신경질적이고 성급한 판단을 잘 내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빨간셔츠와는 다른 인물로 위선이나 아첨을 경멸하는 성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기요가 무엇을 주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도 형도 없을 때뿐이다.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남 몰래 나만 덕을 보는 것처럼 싫은 일은 없다.

清が物を呉れるときには必ずおやじも兄も居ない時に限る。おれはいだと云って人に隠れて自分又得をする程嫌はない。(第1章)

도련님의 마음의 고향인 기요가 아버지도 형도 없을 때 무엇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남 몰래 덕을 보는 이기주의적인 행위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뛰어난 도덕적 감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빨간셔츠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도, 알랑쇠(野だいこ)의 경박한 처신과 아부에 역겨워 하는 것도 모두 그의 이러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교감이고 빨간 셔츠가 나라면 역시 나한테 굶질굶질 비위를 맞추고 빨간셔츠를 놀릴 것이 분명하다. 서울뜨기는 경박하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작자가 시골로 돌면서 나는 서울뜨기입니다 하고 되풀이 한다면 경박이란 서울뜨기이고, 서울뜨기는 경박

이란 뜻이라고 시골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おれが鞆頭で、赤シャツがおれだったら、やっぱりおれにへけつけお世辞を使って赤シャツを冷かすに違いない。江戸っ子は軽薄だと云うがなるほどこんなものが田舎巡りをして、私は江戸っ子でげすと繰り返していたら、軽薄は江戸っ子で、江戸っ子は軽薄の事だと田舎者が思うに極まっている。(第5章)

주인공과 고슴도치 아첨꾼인 알랑쇠가 동경 출신이지만 담백하고 솔직한 도련님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비열하고 경박한 알랑쇠 같은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 속에 이기주의를 조망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느껴진다.

도련님에게 있어서는 정정당당한 행위가 아닌 타인에게 아부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인간은 모두 위선적이고 간사한 인물로 여겨진다. 이처럼 빨간셔츠 뿐만이 아니라, 도련님은 중학교 내의 다른 교사들과도 대부분 대치되고 있는데, 이는 도련님의 순수하고 선한 면모를 이용해 체면과 권위의식에 둘러싸인 교사들을 비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가 마쓰야마 중학교에서의 교사생활을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 보통의 속세와 다름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오히려 혐오가 마저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추측케 해준다.

나쓰메 소세키의 인간 혐오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도련님’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자신이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인간상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은 일반적인 인간세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주인공 도련님은 정직과 정의를 몸소 실천하는 곧은 성품이라는 면에서는 물론 좋은 쪽으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혼자가 아닌 인간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관계의 유지와 사회참여라는 면에서 보면 일반 사람들과 융합할 수 없는 성격인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가 지적했듯이 도련님이라는 인물은 어떤 점에서는 사랑할만하고, 동정을 나타낼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지만 너무 단순하고,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는 원만하게 생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본다.

도련님의 이상적인 가치와 생활습관은 시골 중학교에서 만나는 이기주의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다.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도련님의 순수한 기질과 거기에서 비롯된 깨끗한 정직성 등은 찌들대로 찌든 교루한 가치관을 가진 이기주의자들의 위선과 비열함 등과 항상 부딪치게 된다. 진실은 왜곡되며, 부패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일들은 외면을 당하게 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쩌면 도련님이 모든 일을 해결한 듯 보이지만 결국엔 그 학교는 변한 것이 없으며 도련님과 고슴도치, 가지꼬투리만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지어지게 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풍자의식이 담겨있는 것이다.

2. ‘도련님’ 이외의 교사들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도련님’ 이외의 교사들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실제모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마쓰야마 중학교 교장의 별명은 ‘너구리’인데 그의 실제 모델은 당시 교장 스미타 노보루(住田昇)이다. 그는 권위주의로 가득 찬 전근대적인 유형의 교장이다. 교장은 당시 편협한 인사(人事)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 배격되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하에게는 전출지(転出地)를 정해 놓고는 퇴진한다. 당시 영어 담당교사였던 히로나카(弘中)는 교장의 행동을 ‘보통의 너구리가 아니었다’고 평했다.⁴⁶⁾

그리고 빨간셔츠(赤シャツ)라는 별명을 가진 교감의 실제 모델은 교장에게 알랑거리고 교사들을 편애하는 마쓰야마 중학교 교사 사와유키 지로우(沢幸次郎)이다. 작품에서는 정직을 가장 우선시 하는 도련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사상으로 등장하며 항상 대립되는 역할과 이미지를 가진 이기주의적인 관리자로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련님과 빨간셔츠와 대립 갈등의 구조에 중점을 두어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들의 교육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수학교사인 주인공 도련님의 실제 모델은 마쓰야마 중학교의 영어교사 히로나카이다. 학생들로부터 ‘싯보쿠(シッポク)·뽀치(ボンチ)’라고 불린다. 그리고 당시 수학 교사인 와타나베 마사가즈(渡部政和)가 모델이 된 수학 주임 훗타(堀田)의 별명은 ‘고슴도치’인데, 나쓰메 소세키는 그를 통하여 자신의 교육관을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가지꼬투리’라는 별명을 가진 영어교사 고가(古賀)의 실제 모델은 담당과목 확실치 않은 우메키 타다히로(梅木忠博)이다.

먼저 마쓰야마 중학교 교장의 이미지와 교육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관리직인 교장의 별명은 ‘너구리’이다. 그는 매우 점잔을 빼는 형식주의자이면서도 권위주의자로 등장한다.

교장은 수염이 듬성듬성하고 얼굴빛이 검고 눈이 큰 너구리같은 남자다. 여간 점잔을 빼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하면서 큰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공손하게 내주었다.

校長は薄鬚のある、色の黒い、目の大きな狸のような男である。やにもったいぶっていた。まあ精出して勉強してくれと云って、恭しく大きな印の捺った、辞令を渡した。(第2章)

‘너구리’라는 별명이 붙여진 까닭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으며 약간 대머리에

46) 위의 책, p.347.

다 얼굴색은 거무티티하고 눈이 둥그렇고 커서 마치 너구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도련님이 그 학교에 부임해 갔을 때의 장면이다.

교장은 교육 정신에 대한 지루한 강의를 들려 주었다. 나는 물론 건성으로 듣고 있었지만, 강의 도중에 이거 큰일 날 곳에 왔다고 후회했다. 교장의 말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 같은 무모한 자를 붙잡고 학생의 모범이 되라느니, 전교생의 사표(師表)로 우러러 보이게 하라느니,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化)가 없으면 교육자는 못되느니, 엄청난 주문을 한다. 흥,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월급 40엔을 받으려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구석에 올 것인가. (중략)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속아서 왔다고 담백하게 사절하고 이대로 돌아가 버릴 생각이 들었다. (중략) “나는 도저히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임명장을 도로 반환하겠습니다.” 했더니, 교장은 너구리같은 눈을 깜박대면서 내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 이윽고, “지금 말한 것은 단지 희망 사항이었어요. 선생이 내 희망대로 다 하지 못할 것은 알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며 웃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주문을 안 하면 되잖은가 말이다.

校長は教育の精神について長いお談義を聞かした。おれは無論いい加減に聞いていたが、途中からこれは飛んだ所へ来たと思った。校長の云うようにはとても出来ない。おれみたような無鉄砲なものをつまえて、生徒の模範になれば、一校の師表と仰がれなくてはいかんの、學問以外に個人の徳化を及ぼさなくては教育者になれないの、と無暗に法外な注文をする。そんなえらい人が月給四十円で還々こんな田舎へくるもんか。(中略) おれは嘘をつくのが嫌いだから、仕方がない、だまされて来たのだとあきらめて、思い切りよく、ここで断わって帰っちゃおうと思った。(中略) 到底あなたのおっしゃる通りにや、出来ません、この辞令は返しますと云ったら、校長は狸のような眼をぱちつかせておれの顔を見ていた。やがて、今のはただ希望である、あなたが希望通り出来ないのはよく知っているから心配しなくてもいいと云いながら笑った。そのくらいよく知ってるなら、始めから威嚇さなければいいのに。(第2章)

교장은 첫 부임해 온 도련님에게 교육정신을 길게 설명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위선자이다.⁴⁷⁾ 학생들에게는 사표(師表)로 우러러 보이게 하라느니,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化)가 없으면 교육자는 못되느니 하면서, 표면상으로는 항상 교육자다운 모습과 말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표리부동하고 언제라도 태도를 바꾸는 매우 처세술에 뛰어난 인물이다. 충효애국을 제일로 생각 하는 봉건적 유교윤리를 중시하는 교육관을 가진 교육계의 전형적인 형식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곧 규칙이라고 형식주의를 강조하는 전근대적(前近代的) 교육관을 가진 자이다.

도련님이 학교에 부임해 갔을 때, 교장은 상투적인 문구의 교육정신(教育情神)에 대해 일장 연설 같은 강의를 하고 불필요하게 일일이 모든 교사들에게 그의 임용장인 사령(辭令)을 일일이 보여 줄 것을 무리하게 명령하면서,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의 사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

47) 三好行雄編(1999), 앞의 책, p.83.

化)를 펼치지 않고서는 교육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요구한다. 도련님은 무턱대고 도가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도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그건 곤란한데요. ‘훗타’ 선생도 가고 선생도 가버리면 수학 수업은 전혀 못하게 되고 아니까요.” “못하게 되건 말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조금쯤은 학교의 사정도 살펴 주면 좋지 않은가요? 그리고 부임해 와서 한 달이 될까 말까 하는데 사직을 했다고 하면 선생 이력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それは困る。堀田も去りあなたも去ったら、学校の数学の授業がまるで出来なくなってしまうから…』『出来なくなっても私の知った事じゃありません』『君そう我儘を云うものじゃない、少しは学校の事情も察してくれなくっちゃ困る。それに、素てから一月立つか立たないのに辞職したと云うと、君の経歴の履歴に關係するから、その辺も少しは考えたらいいでしょ』(第11章)

동료 교사 고슴도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화가 난 주인공 도련님이 사표를 내려하자, 형편상 그들 붙잡기 위해 교장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사직하는 것은 장래의 이력(履歷)에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동료 교사 고슴도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화가 난 주인공 도련님이 사표를 내려하자, 형편상 그들 붙잡기 위해 교장은, 한 달도 안 되어서 사직하는 것은 장래의 이력(履歷)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동료 교사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보다도 이력을 중시하는 교장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문학사인 교감(敎頭)의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관리직에 있는 그는 항상 이상하게 여자 같은 상냥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게다가 놀랍게도 삼복더위뿐만 아니라 일 년 열두 달 언제나 빨간색의 모직 플란넬셔츠를 입고 다녀 ‘빨간셔츠(赤シャツ)’라는 별명이 붙은 괴짜이다.

인사를 한 사람 중에 교감 모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문학사라고 한다. (중략) 이상하게 여자 같은 상냥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이 더운데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다.

挨拶をしたうちに敎頭のなにかしと云うのが居た。是は文學士だそうだ。(中略)妙に女の囁な優しい声を出す人だった。もっとも驚いたのはこの暑いのにフランネルの襯衣を着ている。(第2章)

뉘시질 안 가겠어요? 하고 빨간 셔츠가 내게 물었다. 빨간셔츠는 기분 나쁠 정도로 상냥한 소리를 내는 사나이다. 마치 남자인지 여자인지 통 알 수가 없다. 남자라면 남자다운 소리를 내는 법이다.

君釣に行きませんかと赤シャツがおれに聞いた。赤シャツは氣味の悪いおよに優しい声を出す男である。まるで男だか女だか分かりやない。男なら男らしい声を出すもんだ。(第5章)

빨간 색은 몸에 좋으므로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주문을 해 입는다고 한다. 작

품 속에서는 이러한 빨간셔츠의 교감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도련님과 교감(敎頭) 빨간셔츠의 대립은 전형적인 ‘선과 악’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등장인물은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 유형을 단순화해서 그 인물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리고 있다. 특히 이 두 캐릭터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상반된 ‘정(正)’과 ‘반(反)’의 양극 구도로 절묘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작중에서 도련님이 인간성 위주의 인격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 빨간셔츠는 출세주의의 이익사회를 지향하는 이기주의적인 인물로서 근대문명이 탄생시킨 ‘부도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⁴⁸⁾ 그는 게이샤와 어울리기도 하며, 파이프를 애용하는 것도 시골 지방에서의 명사로서 자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특히 동료교사의 약혼녀인 마돈나를 가로채어 버리기도 하는 철면피한이며 전형적인 도덕불감증의 이기주의자이다.

이 두 인물이 맡고 있는 과목 역시도 그들의 성향을 대변해 준다. 빨간셔츠가 문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문학과 같이 복잡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관적인 학문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이며, 도련님이 수학교사인 것은 수학처럼 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오로지 한 방향으로의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인공의 성격과 부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빨간셔츠는 외부 지향적 성격을 나쁜 방향으로 극도로 과장시킨 인물로서 거짓과 허위가 진실처럼 위장되는 현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보고 옳다고 할 수 없는 주인공에게 있어서 빨간셔츠는 적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빨간셔츠에게서는 정의의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찌르는 것이 주특기다. 그의 행동, 말, 처세 모두가 명분과 체면과 거짓으로 일관된다. 나쓰메 소세키의 의도는 이 자를 통해 체면과 거짓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회의 비리와 위선, 인간의 간사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빨간셔츠를 나쓰메 소세키는 아래와 같이 평한다.

사회에 있어서 ‘이긴다’는 것은 소위 ‘야비함’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교감을 통해 체현시켰다. 즉, ‘이긴다’는 것을 위한 조건은—‘야비’해 지는 것의 조건은 모두 교감의 속성으로서 살을 붙여 풍부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교감은 문학사를 자칭하고, 신체시나 하이쿠를 즐기는, 당시의 일본에 있어서 ‘문명’인의 전형으로서도 형상화시키고 있다.

社會において‘勝つ’ものはあらゆる‘野蠻’を兼わ備え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を敎頭において

48) 위의 책, p.83.

体現させた。すなわち‘勝つ’ための条件は一‘野蠻’なるものの条件は悉く教頭の属性として肉づけられている。しかも教頭は文學士を繙き、新体詩や俳句を嗜む、当時のわが国における、‘文明’人の典型としても形象化させている。49)

이상과 같이 나쓰메 소세키는 그를 통해 문명이라는 가명을 쓴 야만성을 소설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빨간셔츠는 일본 근대 문명에 대한 어두운 시각을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빨간셔츠는 스스로 정신적 오락이라고 자부하며, 러시아 문학과 신체시, 하이쿠(俳句), 낚시 등을 즐긴다. 이러한 그의 취미는 지성과 교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표면은 위선과 기만에 가득 차 있다. 때문에 그의 고상한 취미와 그의 내적 추함이 서로 결부되어 오히려 더 그의 이중성과 위선적인 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친절한 그의 겉모습과 내면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의 이중성은 점점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는 사회에 대한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상을 나타낸 것이며, 나쓰메 소세키 그 자신이 혐오하는 인간의 구체적 유형을 드러낸 것이었다.

빨간셔츠의 성향과 두뇌는 추한 욕망에 의해 점령당해 있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비열하고 악랄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동료 교사인 가지꼬투리(うなり)의 가산이 기율자 평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가지꼬투리의 약혼녀인 마돈나를 탐낸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틈타 비열한 방법으로 마돈나에게 접근해 결국 가지꼬투리와 그녀를 갈라놓게 하고서는 마돈나를 가로채 간다.

또한, 다른 동료교사인 고슴도치(山嵐)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해 빨간셔츠의 계획을 방해하려하자, 고슴도치를 제거할 계략을 꾸미며 자신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가지꼬투리를 외딴 산간지방으로 전임시키는 등 표면적으로는 상냥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내면에는 온갖 계략과 권모술수로 가득 차 있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교감 빨간셔츠는 신교육(新教育)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젊은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교원(도련님, 堀田, 古賀 등)들을 모두 배척하려 하는 인물이다. 동료교사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비겁한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영어교사인 고가(古賀)의 약혼녀를 빼앗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시골학교로 전근시킨다. 이에 분개한 수학주임인 훗타(堀田)가 항의하자, 그는 도련님과 훗타 사이를 방해하고, 훗

49) 夏目漱石(1906), 『大學談』, 大學界.

타를 퇴직시켜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겁한 짓도 서슴치 않는 비교육자(非教育者)이다. 다음 문장은 도련님 앞에서 훗타를 은근하게 비난하는 장면이다.

“물론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좋지만, 자기는 나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나쁜 면을 알지 못하면 역시 엉뚱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털털하게 보이고 담백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친절하게 하숙을 알선해 주지만, 실은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無論悪い事をしなければいいんですが、自分だけ悪い事をしなくても、人の悪いのが分らなくっちゃ、やっぱりひどい目に逢うでしょう。世の中には磊落なように見えても、淡泊なように見えても、親切に下宿の世話なんかしてくれても、めったに油断の出来ないのがありますから…。(第5章)』

빨간셔츠는 인간 속세에는 친절하더라도 실은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나쁜 면을 알지 못하면 역시 엉뚱한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교활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고가(古賀)의 송별회에서 교장과 교감의 인사말 부분이다. 허위에 가득한 그들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 자신들이 음모를 꾸며 그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그에 대해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내뱉으며 점잖은 교육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주인공 도련님과 고슴도치는 환멸을 느낀다.

간사가 일어나 한마디 개회사를 했다. 그리고는 ‘너구리’가 일어나고, ‘빨간셔츠’가 일어섰다. 제각기 송별사를 늘어놓았지만, 세 사람이 똑같이 말을 맞춘 듯이 ‘가지꼬투리’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고 이렇게 떠나게 되니 지극히 섭섭한 일이다. 학교뿐 아니라 개인으로도 크게 섭섭한 일이지만 일신상의 사정으로 전임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송별회를 열고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다. 특히 ‘빨간셔츠’는 세 사람 가운데서 제일 ‘고가’ 선생을 추켜 세웠다. ‘이런 좋은 벼를 잃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실로 커다란 불행’이라고까지 말했다. 그 말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진실인양 그 상냥스런 목소리를 한층 상냥스럽게 해서 말하였으므로,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마돈나’도 아마 이런 수단에 걸려들었을 것이다.

幹事が立って、一言開會の辭を述べる。それから狸が立つ。赤シャツが起つ。ことごとく送別の辭を述べたが、三人共申し合せたようにうらなり君の、良教師で好人物な事を吹聴して、今回去られるのはまことに残念である、学校としてのみならず、個人として大いに惜しむところであるが、ご一身上のご都合で、切に転任をご希望になったのだから致し方がないという意味を述べた。こんな嘘をついて送別會を開いて、それでちっとも恥かしいとも思っていない。ことに赤シャツに至って三人のうちで一番うらなり君をほめた。この良友を失うのは實に自分にとって大なる不幸であるとまで云った。しかもそのいい方がいいかにも、もっともらしくって、例のやさしい声を一層やさしくして、述べ立てるのだから、始めて聞いたものは、誰でもきっとだまされるに極ってる。マドンナも大方この手で引掛けたんだろう。(第9章)

다음으로, ‘알랑쇠(野だいこ)’라는 별명을 가진 요시가와(吉川)의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극단적인 출세지향적인 이기주의자 ‘알랑쇠(野だいこ)’는 판에 박힌 예술가 타입을 하고 있는 미술교사로서, 훗타(堀田)나 도련님과는 달리 상사에게는 알랑거리면서 출세하기 위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간다. 그래서 별명도 알랑쇠이다. 알랑쇠 역시 도련님처럼 서울뜨기이다.

‘요시가와’군이라 함은 그 ‘알랑쇠’ 미술 선생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생각에선지 몰라도 ‘빨간셔츠’의 집을 아침저녁으로 출입하며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마치 동료가 아니고 신하와 주인 같았다. ‘빨간셔츠’가 가는 곳이면 반드시 ‘알랑쇠’가 따라가게 마련인지라 이제 새삼스럽게 놀라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가면 될 것을 어찌자고 나같이 무뚝뚝한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오만한 낚시광이라 자기가 낚은 것을 내게 보이고 자랑을 하려는 심보로 권유하는 것일 게다. 그런 뽐내는 꼴을 보고 있을 내가 아니다.

吉川君というのは画学の教師で例の野だいこの事だ。この野だは、どういう見だか、赤シャツのうちへ朝夕出入して、どこへでも随行して行く。まるで同輩じゃない。主従みたようだ。赤シャツの行く所なら、野だは必ず行くに極っているんだから、今さら驚ろきもしないが、二人で行けば情むところを、なんで無愛想のおれへ口を掛けたんだらう。大方高慢ちきな釣道楽で、自分の釣るところをおれに見せびらかすつもりかなんかで誘ったに違いない。そんな事で見せびらかされるおれじゃない。(第5章)

그는 무슨 생각에선지 몰라도 ‘빨간셔츠’의 집을 아침저녁으로 출입하며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마치 동료가 아니고 신하와 주인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알랑쇠는 주로 교감 빨간셔츠를 추종하며, 동료교사들을 배척하는 데 한 몫을 하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박쥐같은 인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처세술이 능한 자이다. 하지만 그에게서 참다운 교사상을 찾아 볼 수는 없다. 다음 문장은 그의 삶의 방식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빨간셔츠의 집에 아침저녁으로 드나들며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다닌다. 마치 동료가 아니고 신하와 주인 같이 아침하는 알랑쇠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 길이면 도미는 어렵겠구먼’하고 빨간셔츠는 줄을 바다에 던졌다. 왕도미를 잡으려는 모양이다. 통도 참 크다. 알랑쇠는 ‘필요. 교감 선생님의 수완이면 능히 걸릴 겁니다. 물결도 잔잔하고 하니.’ 이렇게 아침을 떨면서 자기도 줄을 던졌다.

六尋ぐらいじゃ鯛はむずかしいかと、赤シャツは糸を海へなげ込んだ。大樽鯛を釣る氣と見える、豪胆なものだ。野だは、なに教頭のお手際じゃかかりますよ。それになぎですからとお世辭を云いながら、これも糸を繰り出して投げ入れる。(第5章)

해변 가에 저녁노을이 끼어 자줏빛이 되었군. 좋은 경치야. 여, 요시가와군! 어떤가. 저 물가의 경치가?”하고 큰소리로 알랑쇠를 불렀다. “과연 훌륭하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는데, 애석합니다.” 알랑쇠는 신이 나서 한바탕 알랑댄다.

浜の方は靄でセピヤ色になった。いい景色だ。おい、吉川君どうだい、あの浜の景色はと大きな声を出して野だを呼んだ。なあるほどこりゃ奇絶ですね。時間があると写生するんだが、惜しいですね、このままにしておくのはと野だは大いにたたく。(第5章)

알랑쇠는 바다낚시에 가거나 경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교감 빨간셔츠를 따라다니며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랑댄다. 이 처럼 알랑쇠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사에게는 온갖 아첨을 다한다. 도련님이 옛날 조선시대에 선비로 생각된다면 알랑쇠는 요즘 시대의 처세술이 능한 이기주의자로 볼 수도 있겠다. 같은 도쿄(東京) 지역의 출신이지만 도련님은 의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 정직한 선비의 습성과 닮았고, 알랑쇠는 너무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물들어 버린 현대 사람들과 닮았다. 어느 쪽이 옳다 할 수는 없으나 너무 세속적인 면보다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의를 지키려는 도련님의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결국 알랑쇠는 학교로부터 배제되어 가는 고슴도치, 도련님과는 대척적인 인물이며, 상사와 학생에게는 투기영합하며 학교제도 속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전형적인 비교육자적인 교사로 등장한다.

다음으로, 훗따(堀田) 선생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훗따는 뺨뺨머리에 다 마치 히에이산(比叡山)⁵⁰의 까까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도련님이 ‘고슴도치’라는 별명을 붙여 준 젊은 수학 부장교사로 등장한다. 그는 교장, 교감, 알랑쇠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교육자들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서 싸우는 교사로 등장한다.

고슴도치는 유리창이 울리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나는 교감 선생님과 기타 여러분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까닭은,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50명의 기숙생이 새로 온 교사 모씨를 경멸하고, 그를 희롱하려고 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감 선생님은 그 원인을 교사의 인격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실례지만 그것은 큰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씨는 부임 후 첫 숙직을 하게 된 것으로써, 아직 학생들과 알게 된 지 20일 밖에 안 될 때입니다. 이 짧은 20일 동안에 학생들은 모씨의 학문이나 인격을 평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멸을 받았다면 학생의 행위를 참작해 줄 이유도 있겠습니까만, 하등의 원인도 없이 신임 선생을 조롱하는 따위의 경박한 학생들을 관대하게 처분해서는 학교의 위신도 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정신은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상하고 정직한 무사적인 기풍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야비하고 경박하고 폭력적인 나쁜 버릇을 없애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만일 반감이 두렵다, 소동이 확대된다 하는 따위의 고지식한 태도를 취하는 날에는, 이런 나쁜 풍습은 언제 시정이 될지 모를

50) マルチ辞典(<http://dictionary.www.infoseek.co.jp>), 2006.3.17.

京都府と滋賀県の境、京都市の北東方にある山。頂上は主峰大比叡(海拔848メートル)と四明ヶ岳(海拔839メートル)に分かれる。古來信仰の山として知られ天台宗總本山延暦寺がある。

일입니다. 그와 같은 나쁜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본 채하려면 처음부터 교사가 되지 않는 편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기숙생 일동을 엄벌에 처하는 동시에 당해 교사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한 조치인줄 압니다.”

山嵐は硝子窓を振わせるような声で「私は教頭及びその他諸君のお説には全然不同意であります。というものはこの事件はどの点から見ても、五十名の寄宿生が新来の教師某氏を輕侮してこれを翻弄しようとした所爲とより外には認められぬのであります。教頭はその原因を教師の人物いかんにお求めになるようでありますが失礼ながらそれは失言かと思ひます。某氏が宿直にあたられたのは着後早々の事で、まだ生徒に接せられてから二十日に滿たぬ頃であります。この短かい二十日間において生徒は君の學問人物を評價し得る余地がないのであります。輕侮されべき至当な理由があつて、輕侮を受けたのなら生徒の行爲に斟酌を加える理由もありませんが、何らの原因もないのに新来の先生を愚弄するような輕薄な生徒を寛假しては學校の威信に關わる事と思ひます。教育の精神は單に學問を授けるばかりではない、高尚な、正直な、武士的な元氣を鼓吹すると同時に、野卑な、輕躁な、暴慢な惡風を掃蕩するにあると思ひます。もし反動が恐い、騷動が大きくなると姑息な事を云つた日にはこの弊風はいつ矯正出来るか知れません。かかる弊風を杜絶するためにこそ吾々はこの學校に職を奉じているので、これを見逃がすくらいなら始めから教師にならん方がいと思ひます。私は以上の理由で寄宿生一同を嚴罰に處する上に、当該教師の面前において公けに謝罪の意を表せしむるのを至當の所置と心得ます」(第6章)

위의 장면은 도련님이 숙직하던 날, 이른바 ‘메뚜기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당한 후에 그 학생들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직원회의에서 ‘고슴도치’가 모든 교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한 내용으로써 확고한 그의 교육정신을 엿볼 수가 있다. 그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나쁜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것을 못 본 채하려면 처음부터 교사가 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기숙생 일동을 엄벌에 처하는 동시에 당해 교사 앞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의 정신은 단지 학문을 배우고 형식적인 예의를 지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상함과 정직, 그리고 무사적(武士的)인 용기를 배우고, 비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행동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나쓰메 소세키는 ‘고슴도치’ 선생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훗따는 도련님처럼 정의감에 불타는 용기 있는 인물로서, 참다운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교사이다.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망이 높다. 결국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교감의 질투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두게 된다. 한 인간으로서의 올바름을 주장하는 교사가 학교조직으로부터 배제되어 가는 냉혹함의 현실이 다가 온다.

다음은 영어교사 고가(古賀) 선생의 이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고가(古賀) 선생은 안색이 파리하면서도 붓기가 있는데, 그것은 가지를 많이 먹은 벌 때문이

라고 기요가 설명해 준 것을 계기로 도련님이 ‘가지꼬투리(うらなり)’라는 별명을 붙여 준 젊은 영어교사로 시고쿠 출신이다.

학교에 나와서도 가지꼬투리 선생처럼 점잖은 사람은 없다. 별로 웃는 일도 없지만, 필요 없는 말을 하는 일도 없다. 나는 군자라는 말을 책에서만 봤는데, 그저 책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지꼬투리 선생을 만나고 난 후로는 역시 거짓말이 아니라고 감동할 정도였다.

学校へ出てうらなり君ほど大人しい人は居ない。めったに笑った事もないが、余計な口をきいた事もない。おれは君子という言葉を書物の上で知ってるが、これは字引にあるばかりで、生きてるものではないと思ってたが、うらなり君に逢ってから始めて、やっぱり正体のある文字だと感心したくらいだ。(第6章)

도련님은 그를 ‘진정한 군자(君子)’라고 평하고 있다. 고가의 인간성은 권모술수를 전혀 모르는 순수한 것이 특징이다. 형식주의 교육자와 싸움하는 것 보다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우유부단한 남자 교사로 등장한다.

“헌데 지난해 그 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돈도 있었고, 은행 주권도 듬뿍 있었고 해서, 만사가 다 술술 잘 됐었당께요. 근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위편 썰인지 갑작스리 살기가 어렵게 되었어라우. 말하자면 고가 선생이 너무 인심이 좋기 땀시 속아 넘어간 게라우. 이력저력 해서 혼인이 늦게 되자, 저 교감 선생이 나타나서 꼭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졸라 댔당께요.” “저 빨간셔츠가 말이지요? 지독한 녀석인데. 어쩐지 그 셔츠는 보통 셔츠가 아닐 줄 알았습니다.” (중략) “그렇게로 교감 선생도 교감 선생이지만, 그 아가씨도 아가씨라고, 모두들 좋잖게 험구를 한당께요.”

「ところが、去年あすこのお父さんが、お亡くなりて、それまではお金もあるし、銀行の株も持ってお出るし、万事都合がよかったのじゃが— それからというものは、どういものか急に暮し向きが思わしくなくなって— つつまり古賀さんがあまりお人が好過ぎるけれ、お欺されたんぞなもし。それや、これやでお興入も延びているところへ、あの教頭さんがお出でて、是非お嫁にほしいとお云いるのじゃがなもし。」 「あの赤シャツがですか。ひどい奴だ。どうもあのシャツはただのシャツじゃないと思ってた。」 (中略) 赤シャツさんも赤シャツさんじゃが、お嬢さんもお嬢さんじゃてて、みんなが悪く云いますのよ。(第7章)

도련님이 가지꼬투리 선생을 군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가지꼬투리 선생은 악과는 거리가 멀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기울자 약혼녀와 결혼이 늦어지게 된다. 게다가 너무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빨간셔츠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 결국 야비한 교감 빨간셔츠에게 약혼녀인 마돈나를 빼앗기게 되고, 끝내 시골 중학교로 전근 당하게 된다.

야비하면서도 교활한 비인간적인 지독한 빨간셔츠도 빨간셔츠이지만, 그 아가씨도 아가씨라고, 주변인 모두가 좋지 않게 험구를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돈나가 교감 빨간셔츠에게 끌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清과 도련님의 윤리관이기도 하다)에서 본다면, 한번 약속한 결혼을

상대가 무능력하다고 파기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빨간셔츠의 유혹에서도 마돈나는 충분히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돈나는 봉건적인 윤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찾아 능동적인 선택을 하였다.⁵¹⁾

“이번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규슈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 선생님께서 이같이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기타 여러 선생님께서 송별사를 주신 데 대하여 크게 감사히 여깁니다. 저는 이제부터 먼 곳으로 떠나갑시다만, 앞으로도 종전과 같이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가지꼬투리 선생은 땅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가지꼬투리 선생은 어디까지 사람이 좋은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 자기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는 교장과 교감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도 의례상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 태도와 말솜씨와 얼굴 표정으로 봐서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는 것 같았다. 이런 성인 같은 사람에게 진심이 넘치는 인사말을 듣게 되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질만도 한데 너구리도 빨간셔츠도 점잖게 듣고만 있을 뿐이다.

今般は一身上の都合で九州へ参る事になりましたについて、諸先生方が小生のためにこの盛大なる送別會をお開き下さったのは、まことに感銘の至りに堪えぬ次第で--ことにただ今は校長、教頭その他諸君の送別の旨を頂戴して、大いに難有く服膺する訳であります。私はこれから遠方へ参りますが、なにとぞ従前の通りお見捨てなくご愛顧のほどを願います。とへえつく張って席に戻った。うらなり君はどこまで人が好んだか、ほとんど底が知れない。自分がこんなに馬鹿にされている校長や、教頭に恭しくお礼を云っている。それも義理一遍の挨拶ならだが、あの隣子や、あの言葉つきや、あの顔つきから云うと、心から感謝しているらしい。こんな聖人に真面目にお礼を云われたら、氣の毒になって、赤面しそうなものだが狸も赤シャツも真面目に謹んでいるばかりだ。(第9章)

빨간셔츠에게 당하여 규슈로 전근가게 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손히 인사까지 하면서 개인 문제로 돌려 버리고 있다. 도련님은 성인 같은 가지꼬투리 선생이 진심이 넘치는 인사말을 하고 있으니, 너구리도 빨간셔츠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질만도 한데 점잖게 듣고만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지꼬투리 선생은 언제나 너구리 교장과 교활한 빨간셔츠에게 푸대접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형식주의 교육자들과 타협은 하지 않았으나,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부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항변 한마디 못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인공이 내뱉는 대사에서 그의 이 같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엿 볼 수 있다.

이익사회 지향의 빨간셔츠, 알랑쇠, 마돈나 등은 실리 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

51) 유상희(2001), 『나쓰메소세키연구』, 보고서.

나쓰메 소세키의 『三四郎』의 미네코 역시 그러한 부류의 여성으로 묘사된다.

하기 위해 의리나 체면, 도의를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부정적 신질서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가지꼬투리는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인물로서 비춰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다. 고슴도치는 구질서 속에 있기는 하지만 시대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명석함을 지녔기 때문에 경원당하고 있다.

결국 나쓰메 소세키는 ‘인격사회 지향’과 ‘이익사회 지향’의 두 질서 모두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너구리, 빨간셔츠, 알랑쇠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부적합 교사들로 묘사하고 있는 한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도련님, 고슴도치, 가지꼬투리 같은 인물은 적자생존이라는 사회 진화론적 법칙에 따라 사회에서 밀려나야하는 아웃사이드어들로 본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정직함으로 무장한 『도련님』의 주제를 통하여 다가 올 일본의 미래 교육을 전망하고 교육계에 처방을 내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교사들은 도의심이 강하고, 정직한 인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도리와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원했으며, 정직하고 참다운 용기를 가진 도련님이나 고슴도치, 비폭력적인 가지꼬투리 같은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때 올바른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한편 도련님 이외에도 『도련님』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에서 나쓰메 소세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누마 시게키(漱沼茂樹)는 나쓰메 소세키 자신의 투영된 모습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소세키 자신의 내면에 사는 고귀한 혼과 함께 비속한 혼의 외재화이고, 비통을 깊이 연구하는 자기비판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의 내면에는 도련님, 고슴도치와 함께 빨간셔츠, 알랑쇠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漱石自身のうちに住む高貴の魂であるとともに卑俗の魂の外在化であり、悲痛をきわめる自己批判であることを見のがしてはならない。彼の中にはぼっちゃん、山嵐とともに赤シャツ野だいこも住んでいたはずである。⁵²⁾

소세키 자신의 내면에 사는 고귀한 혼과 함께 비속한 혼의 외부로 드러나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시켰으며 굴절된 형태로 외현화시켰다. 이는 비통을 깊이 연구하는 나쓰메 소세키 자기 자신의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의 내면에는 도련님뿐만 아니라 가지꼬투리, 고슴도치, 빨간셔츠, 알랑쇠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도련님과 빨간셔츠의 대립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나쓰메 소세키가 도

52) 漱沼茂樹(1980), 『別冊国文学(5)-夏目漱石必攜』, 學燈社, p.152.

런님보다는 빨간셔츠와 오히려 닮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빨간셔츠는 작품에 등장하는 교사 중에서 유일한 문학사였는데 나쓰메 소세키도 마쓰야마 중학교에서는 유일한 문학사였다. 또 빨간셔츠는 『제국문학(帝國文學)』을 읽고 강한 영향을 받는데, 나쓰메 소세키는 『제국문학』의 편집위원을 지냈었다. 더욱이 빨간셔츠는 하이쿠(俳句)가 취미인데 나쓰메 소세키도 마쓰야마 중학교에 근무하였을 당시 하이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빨간셔츠의 여성적 경향이 라든지 유미적 성향도 나쓰메 소세키와 닮아 있다.

줄 뿐이지요 하고 턱을 문지르며 전문가나 되는 듯한 말을 했다...(중략)…알랑쇠는 절경입지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자는 나도 도쿄 태생입지요라고 말한다.
系だけでげすと顎を撫でて黒人じみたことを云った。…(中略)…野だけは絶景でげすと云っている。これで当人は私も江戸っ子でげすと云っている。(第5章)

고슴도치(山嵐)에게서는 자신의 교육론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가지꼬투리(じなり)에게서는 위 무력증으로 고생했던 자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알랑쇠(野だいこ)에서는 ‘게스(げす)’라는 말을 쓰는 점이 나쓰메 소세키와 공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고미야 도요타카(小宮豊隆)도 나쓰메 소세키가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자신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만약 『坊ちゃん』에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델은 모두 나쓰메 소세키 자신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もし『坊ちゃん』にモデルがあるとすればそのモデルはすべて漱石自身であったというのが一番正しい解析であると思う。53)

작품 내에서 ‘인격사회 지향’의 대표로서 도련님과 ‘이기사회 지향’의 대표로서의 빨간셔츠를 등장시키고 있는 작가의 의도와 나쓰메 소세키와 빨간셔츠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빨간셔츠를 통해 작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인물이든 부정적 인물이든, 여러 주인공들을 통해 나쓰메 소세키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련님』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쓰메 소세키의 단순한 여흥의 산물이 아니며, 그것은 그의 내면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일관된 것의 구체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고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절묘하게

53) 小宮豊隆(1981), 『夏目漱石全集第二巻-坊ちゃん解説』, 岩波書店, p.95.

표현하고 있다. 글 내용이나 등장인물들의 묘사가 오늘날의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도련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과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로 구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표1]로 정리하였다.

[표1] 『도련님』에 등장하는 교사들의 이미지 분석 내용 요약

형태	등장인물	인물 소개	인격·이미지 특징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	교장	· 너구리(별명) · 관리직	·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위선자로 표리부동하고, 표면상으로는 언제나 무엇이든 형편이 좋은 대로 처신하는 처세술이 좋은 자
	교감	· 뺨간셔츠(별명) · 문학사(대학졸업생) · 관리직	· 반대파인 교원(도련님, 훗타, 고가 등)을 배척하려고 한다. · 동료교사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자
	요시가와(吉川)	· 알랑쇠(별명)	· 학교로부터 배제되어 가는 고슴도치, 도련님과는 대척적인 인물이며, 학생에의 투기영합, 상사에게는 알랑거리면서, 학교제도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유형의 교사
긍정적인 이미지 그룹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	도련님(坊っちゃん)	· 주인공 · 수학교사 · 물리학교 졸업 · 동경 출신 · 젊은 교원	· 관리직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는 강함을 가진 자 · 타자로부터 감시되고 있는 압박감, 교사라고 하는 걸치레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저항함 · 교장의 형식주의적인 교육방침을 비판함 · 정의에 가치기준을 두는 주인공은 교사인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학교조직으로부터 이탈해 감
	훗타(堀田)	· 고슴도치(별명) · 수학 부장 교사 · 젊은 교원	· 학생들의 신망이 높음 · 교장, 교감, 알랑쇠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자들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서 싸우는 교사 · 한 인간으로서의 올바름을 주장하는 교사는 학교조직으로부터 결국 배제되어 감
	고가(古賀)	· 가지꼬투리(별명) · 영어교사 · 젊은 교원 · 시코쿠(四国)출신	· 도련님은 그를 진정한 君子라고 평하고 있음 · 형식주의교육자와 싸움하는 것 보다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우유부단한 남자 교사

3. 학생들의 이미지를 통해 본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여기서는 마쓰야마 중학생들이 신입 선생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도 집요하게 심한 장난을 치는 ‘튀김국수 사건’, ‘경단 사건’, ‘수학문제 사건’ ‘메뚜기사건’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학개량책』에서 학생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도련님』에 나타나고 있다. 도련님은 학생들이 음험(陰險)하고 악질적인 악희(惡戲) 짓만 골라하고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항상 투덜댈 뿐만 아니라 도의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힐난한다. 도련님이 좁은 마을에서 튀김국수를 먹고 하고, 경단을 먹기도 하며 온천에 다니기도 하지만, 그 때마다 학생들은 장난으로 일삼는다. 학생들 모두가 도련님 자신을 탐정이나 하듯이 뒤쫓아 다니며 끊임없이 장난을 쳐서 기분이 나쁘다고 불만을 터트린다.⁵⁴⁾ 학생들의 이미지는 착실하고 학업에 열중하며 푸른 꿈을 키우는 모습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신입 선생님을 골탕 먹이면서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는 호기심이 가득 찬 장난꾸러기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여보세요, 여기 튀김국수 하나 주세요.”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 구석에 몰려 앉아서 뭐가 후루룩후루룩 먹고 있던 세 사람의 무리가 일제히 내 쪽을 본다. 방안이 어두웠으므로 얼른 알아볼 수가 없었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모두가 학교 학생들이었다. 저편에서 인사를 했으므로 나도 인사를 했다.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먹는 메밀국수라, 매우 맛이 있어서 한자리에서 네 그릇을 해치워 버렸다.

おい天麩羅を持ってこいと大きな声を出した。するとこの時まで隅の方に三人かたまって、何かをつる、ちゅうちゅう食ってた連中が、ひとしくおれの方を見た。部屋が暗いので、ちょっと気がつかなかったが顔を合せると、みんな学校の生徒である。先方で挨拶をしたから、おれも挨拶をした。その晩は久し振に蕎麦を食ったので、旨かったから天麩羅を四杯平げた。(第3章)

학생들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튀김국수 사건(天麩羅事件)’이다. 마쓰야마 지방에서는 ‘튀김메밀국수(天ぷらそば)’를 ‘싯뽀쿠라’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튀김국수를 좋아하는 도련님은 선생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학생들 앞에서 네 그릇이나 되는 국수를 먹어치우는 이른바 ‘튀김국수사건’ 때문에,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칠판에는 온통 ‘튀김 선생님’이라는 낙서 천지에 매우 화가 난 주인공은 학생들에 대해 과도하게 흥분한다.

54) 小石川文学研究会(2004), “作品事典『坊っちゃん』” 『名作早わかり夏目漱石全作品』, コスミック出版, pp.39-41.

튀김국수사건(이후...)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스미다(住田)라는 곳은 온천 마을로써, (中略) 요릿집, 온천 여관, 공원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생집도 있다. 내가 들어갔던 경단집은 기생집이 있는 유흥가 입구에 있었는데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온천을 다녀오다가 잠깐 들어가 먹어본 것이다.(중략)이튿날 학교에 가서, 1교시 째에 교실로 들어갔다. '경단 두 접시 7전'이라고 써 있었다. 사실 나는 두 접시 먹고 7전을 지불했다. 어쨌든 귀찮은 녀석들이다. 2교시에도 꼭 뭔가 있으리라고 여겼더니, '기생집 경단은 맛이 좋더라!'고 써 있었다. 기막힐 녀석들이다.

天麩羅蕎麥(以後...)四日目の晩に住田と云う所へ行つて団子を食べた。この住田と云う所は温泉のある町で、(中略) 料理屋も温泉宿も、公園もある上に遊廓がある。おれのはいった団子屋は遊廓の入口にあつて、大変うまいという評判だから、温泉に行った帰りにちょっと食べてみた。(中略)翌日学校へ行つて、一時間目の教場へはいると団子二皿七銭と書いてある。實際おれは二皿食つて七銭払つた。どうも厄介な奴等だ。二時間目にもきつと何かあると思うと遊廓の団子旨い旨いと書いてある。あきれ返つた奴等だ。(第3章)

'경단(団子)의 이야기'는 나쓰메 소세키 자신의 체험을 작품화한 것이다. 도련님은 교사로 부임 받은 뒤부터 거의 매일같이 그곳의 온천에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 다닐 때 항상 커다란 빨간 타올을 늘어뜨리고 다닌다. 이것이 좁은 고장에 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새 화제에 오르게 된다. 도련님은 어린아이처럼 온천의 탕 속에서 헤엄치기를 즐긴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탕 속에서 헤엄치기 말 것이라는 폐쪽이 붙은 것이다. 그 뒤 학교에 와서 보니 역시 칠판에도 같은 글이 써 있었다.

이처럼 도련님은 아무데서나 튀김 국수나 경단을 먹으며 빨간 수건을 허리에 차고 온천에 다니는 등 사표로서의 공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특히 빨간셔츠의 유곽 출입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전체 교사들을 추악한 속물들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문학 작품의 세계를 그대로 현실 세계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미성숙된 청소년들에게 가장 애독되는 소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위와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본질적인 의도와는 반대의 것으로 논리의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교육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도련님의 '특이한' 행동들이 그 좁은 시골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도련님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

어쩐지 학생 전체가 나 하나를 탐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속이 상했다.
 何だか生徒全体がおれ一人を探偵してゐるよゝに思われた。くさくさした。(第3章)

나쓰메 소세키에게는 원래 탐정 콤플렉스의 경향이 있어서 누구에게 탐정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다고 한다. 위에서처럼 주인공이 별것 아닌 일에 흥분하

는 것도 이러한 나쓰메 소세키의 의식의 반영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비난하고, 나쁘다는 쪽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확실히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어리고,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교사 자질 부족이라는 문제와 연관되게 만든다. 도련님의 학생들에 대한 불쾌감이나 반감을 아래와 같은 ‘수학문제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학생 한 놈이 이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없으께라우, 예, 하고 풀릴 것 같지도 않은 기하문제를 가지고 대드는 데는 진땀을 뺐다. 할 수 없기에 무언지 모르겠다. 이 다음에 가르쳐 주마 하고 서둘러 교실을 나왔더니, 학생들이 와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生徒の一人が一寸此問題を解釈をしてくれんかな、もし、と出来さうもない幾何の問題を持って遍ったには冷汗を流した。仕方がないから何だか分からない、此の次躰へてやると急いで引き揚げたら、生徒がわあと囃した。(第3章)

수학 수업 시간에 교사생활이 처음이라 약간은 당황하기도 한 도련님은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빠른 말씨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에 한 학생이 어려운 기하학 문제를 들고 와서 풀어 달라고 하자 다음에 풀어주겠다고 하며 허둥지둥 교실을 나오는 도련님의 뒤에서는 학생들의 ‘와아’하는 야유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학생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수학 문제풀이에 대한 낙서를 주인공은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우 심한 장난인 ‘메뚜기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도련님이 숙직하던 날 숙직실 잠자리에 들자 이부자리에서 메뚜기 오육십 마리가 튀어나온다. 학생들이 도련님을 꿀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다. 이 메뚜기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과도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중학교에 무엇 하러 들어 왔냐 말이다. 학교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뒷구멍에서 속닥속닥 수근 거리는 건방진 나쁜 장난을 하고, 그리고 버젓하게 졸업을 하면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줄병들이다.(중략) 이대로 넘기고 만다면 내 체면에 관계된다. 에뎃꼬는 기개가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원통하다. 숙직을 하고, 코흘리개 애 녀석들에게 놀림을 받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참아 버린 것이라고 남들이 생각한다면 일생의 불명예다.

全体中學校へ何しにはいってらんだ。學校へはいつて、嘘を吐て、胡魔化して、陰でこせこせ生意氣な悪いたずらをして、そして大きな面で卒業すれば教育を受けたもんだと癩違いをしていやがる。話せない雜兵だ。(中略) このままに済ましてはおれの顔にかかわる。江戸っ子は意氣地がないと云われるのは残念だ。宿直をして鼻垂れ小僧にからかわれて、手のつけようがなくて、仕方がないから泣き寝入りしたと思われちゃ一生の名折れだ。(第4章)

도련님은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나쁜 장난을 하고, 졸업을 하면 교

육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비난한다. 도련님 자신은 기개가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 원통하고 체면에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숙직을 하고,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서도, 참아 버린 것이라고 남들이 생각한다면 일생의 불명예라고 여긴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치미를 떼고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도련님은 몹시 분개하며 학생들을 모두 ‘악’으로 몰아 부친다. 아직 미성숙한 중학생들의 장난을 폭 넓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해심의 부족을 엿볼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 스스로가 당시의 교육현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⁵⁾

아래는 승전을 기념하러 학생들을 인솔해 가는 장면이다. 도련님의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전기념일이라 학교는 쉰다. (중략) 학생들은 아직 어릴 뿐 아니라 펍 건방져서 규율을 깨뜨리지 않으면 학생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여긴다...(중략) 명령도 내지리 않았는데 맘대로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마치 깡패들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중략) 떠들지 않고도 길을 걸을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 입부터 나온다더니 이 녀석들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어 먹질 않는다. 떠들어도 그냥 떠들면 좋겠는데, 하필 선생 육을 하니까 하등 동물들이다. ‘메뚜기 사건’으로 학생들이 사죄를 했으므로 나아지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학생이 사과를 한 것은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교장에게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祝勝會で學校はお休みだ。(中略)生徒は小供の上に、生意氣で、規律を破らなくっては生徒の体面にかかわると思ってる奴等...。(中略)命令も下さないのに勝手な軍歌をうたったり...まるで浪人が町内をねりあるようなものだ。(中略)喋舌らないでも歩けそうなもんだが、日本人はみな口から先へ生れるのだから、いくら小言を云ったって聞きっこない。喋舌るのもただ喋舌るのではない、教師のわる口を喋舌るんだから、下等だ。‘宿直事件’で生徒を謝罪して、まあこれならよかろうと思っていた。(中略)生徒があやまったのは心から後悔してあやまったのではない。ただ校長から、命令されて、形式的に頭を下げたのである。(第10章)

학생 녀석들은 규율을 깨뜨리고 선생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질 않는다. 제멋대로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마치 깡패들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다고 비유한다. 떠들어도 그냥 떠들면 좋겠는데, 하필 선생 육을 하니까 더욱이 ‘하등 동물’들이라고 까지 비난한다. ‘메뚜기사건’으로 학생들이 이제는 나아지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주 탄판이었다. 학생들은 진정으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교장의 명령으로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서 ‘사람들이 사과를 하든지 빌든지 할 때, 진짜로 여겨서 용서해 주면 너무 정직

55) 洪承燾(1996), 『夏目漱石의 作品속에 나타난 教師像』, 中央大学校教育大学院.

한 바보라고 할 것이다. 사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이니까, 용서도 거짓으로 해 주면 된다.’며 분개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잘못에 대한 사과를 저질렀을 때에는, 본인이 진짜 후회할 때까지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오히려 학생들은 도련님의 친난만한 유아적 경향에 친근감을 느껴 관심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련님에게는 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조차도 부족하여 학생들의 이러한 장난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만 있으며, 친근감은커녕 학생들에게 증오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련님은 학생과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다. 도련님의 사고는 극히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좋다·싫다’라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으며, 단지 ‘정(正)인가 부정(不定)인가’라는 단순한 이원적인 호오(好惡)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

도련님에게서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친근감이나 연대감도 느낄 수 없다. 하라오카(平岡)는 『도련님시론(坊っちゃん試論)』에서 ‘나쓰메 소세키가 묘사하는 도련님의 특징은 비판 대상(학생)과의 단절적인 거리에 있다. 이는 차원을 달리하여 학생들을 비판하는 점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간적 교류가 어느 정도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비평하고 있다.⁵⁶⁾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과 학생들과의 대립을 통해 교사의 자질과 거리가 먼 주인공을 희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당시의 지식 육성 편중의 교육으로 인한 도의심 부족의 문제점을 재인식시킨 것이다.

학생들의 장난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증오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등 동물’이라고 까지 할 정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장난꾸러기요 말썽꾸러기들이다. 교사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놀림감의 대상으로 삼아 업신여기며 도덕성이 결여된 학생들로 등장하고 있다.

56) 平岡敏夫(1971), 『坊っちゃん試論』, 初出文學.

IV. 『중학개량책(中學改良策)』 및 『우견수칙(愚見教則)』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지금까지 『도련님』에서 제기되어 있는 교육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중학개량책』과 『우견수칙』이라는 텍스트를 남기고 있어 흥미롭다. 여기서는 『도련님』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의 근거가 되는 텍스트인 『중학개량책』과 『우견수칙』에 나타난 그의 교육관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중학개량책(中學改良策)』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나쓰메 소세키가 교육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최초로 피력(披瀝)한 것은, 1892년(메이지 25) 동경제국대학문과대학 3학년 재학생 때 발표했던 『중학개량책』이라는 교육학 보고서였다. 이 『중학개량책』은 제1편 서론, 제2편 유신 이래 중학교 연혁, 제3편 중학개량책(제1절 大中小학교의 연결, 제2절 교사의 개량, 제3절 학생의 개량)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학에 대한 개량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히 교수상(教授上)의 의견에 머무는 것도 있으며 또는 중학교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요컨대 교육에 대한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⁵⁷⁾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는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의 핵심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

원래부터 국가를 위해서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은 이치상 감탄할 만한 의론이 아니며, 이미 ‘국가를 위해’라는 목적이 있는 이상은 돈을 얻기 위해서든, 명예를 사기 위해서든, 욕망을 이루어 마음대로 해보기 위해서든 간에 거기에는 고하의 차별이 있을 지언정 교육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교육은 단지 교육을 받는 당사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그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불과하다.

固より國家の爲めに人間を教育するという理屈上感心すべき議論にあらずして‘國家の爲めに’
という目的ある以上は金を得る爲めにと云ふも名譽を買う爲めにと云うも或は欲を遂げ情を恣にする爲に教育すといふも高下の差別こそあれ其の教育外に目的を有するに至っては毫も異なる所なし
理論上より言へば教育は只教育を受くる堂人の爲めにするのみにて其の固有の才力を啓發し其天賦の徳性を涵養するに過ぎず⁵⁸⁾

57) 夏目漱石(1996), 『夏目漱石全集第26巻』, 岩波書店, p.72.

58) 위의 책, pp.37-72.

나쓰메 소세키가 ‘교육은 국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고 그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오늘날의 교육 목적이나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학자적인 매우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교육의 정신은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상하고 정직한 무사적인 기풍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야비하고 경박하고 폭력적인 나쁜 버릇을 없애는 데 있다고 본다. (중략) 그와 같은 나쁜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본 채하려면 처음부터 교사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教育の精神は単に學問を授けるばかりではない。高尚な、正直な、武士的な元氣を鼓吹すると同時に、野卑な、乾燥な、暴慢な悪風を掃蕩するにあると思ひます。…かかる弊風を杜絶する爲めにこそ吾々はこの學校に職を奉じて居るので、これを見逃がすくらいなら始めから教師にならん方がいと思ひます。(第6章)

『도련님』은 그의 교육에 관한 견해가 피로(披露)된 작품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의 정신은 『도련님』에서 수학교사인 고슴도치의 표현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11년 전의 나쓰메 소세키가 ‘고슴도치’가 되어 작품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교육의 정신은 단지 학문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상하고 정직한 무사적인 기풍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야비하고 경박하고 폭력적인 나쁜 버릇을 없애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쓰메 소세키가 아사쿠사(淺草)의 도다(戸田) 소학교에 다닐 때에 『소학독본(小學讀本)』(1874)년이라는 책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그 책에는 “사람에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며, 그것은 많이 배우고 배우지 않음에 달려 있으니,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널리 유익하게 쓰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평범한 길로 가려면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현명한 사람이 되어, 반드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아주 어려운 문장이지만 당시의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자신은 기댈 곳도 없다는 것에 불안을 느껴 왔던 나쓰메 소세키는 열심히 배워서 현명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부모나 집을 위해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나쓰메 소세키는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훗날 그가 주장하는 교육관의 저변에 깔려 있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의 교육제도나 실용주의의 사회적 배경, 후쿠자와(福沢)의 『학문을 권함』 등은 나쓰메 소세키의 교

육관 형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나쓰메 소세키를 흔히 윤리적 작가라고 말한다. 그것은 수신(修身)하여 언행일치를 강조하는 유교적 무사의 후예였기 때문이다. 말없는 실행과 표리가 없는 담백한 마음에 애정을 느끼고 거기에 인간적인 비전을 보고 있으나 메이지 시대는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은 서구열강을 따라잡기 위하여 다량의 신지식(新知識)을 무턱대고 주입시키는데 주력했으며, 충(忠)과 효(孝)를 교육이념으로 하여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여파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개인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교육은 지육(智育)에 편중되어 있었고, 덕육(德育)은 ‘국가에 충성심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심’을 기르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은 작위의 실용주의를 표방한 면모를 통찰한 나쓰메 소세키는 이러한 양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빨간 셔츠 일당에 대한 희화화(戲面化)라는 형태로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인간의 품성을 높이는 인격도야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목들을 양성하는 거대한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실용주의를 배경으로 한 메커니즘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다 보니 메이지 시대의 학교는 당연히 출세를 위한 처세를 가르치는 곳, 출세를 위해 때로는 비열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역기능으로 내비친다.

이와 같은 풍조는 인격자보다는 유능한 자를 대우하게 되고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금력을 쥐려는 세대가 되었다. 『도련님』 제4장에서 수학 교사 ‘고슴도치’가 ‘Might is right(강자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런 악풍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서 두 사람(너구리와 빨간셔츠)이 당연한 숙직의무에서 제외되느냐고 물어보니, 주임(奏任)⁵⁹⁾ 대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월급은 많이 받고, 수업 시간은 적으면서도 숙직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만저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맘대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세를 하고 있다. 잘도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해댄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들 대부분 불평이지만, ‘고슴도치’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 보았자 통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고슴도치’는 ‘Might is right’ 라는 영어를 끌어대어 비유를 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되물어 보았더니, ‘강자의 권리’라는 뜻이라고 했다.

何でこの兩人が当然の(宿直)義務を免かれるのかと聞いてみたら、奏任待遇だからと云う。...月給はたくさんとる、時間は少ない、それで宿直を逃がれるなんて不公平があるものか。勝手な規則をこしらえて、それが当たり前だというような顔をしている。よくまああんなにずうずうしく出来るものだ。これに

59) 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word&id=257654

① 주무 대신(主務大臣)이 임금에게 벼슬아치의 임명을 상주(上奏)하여 윤허를 얻어 임명된 관리, ② 주임관(奏任官)

ついでは大分不平であるが、山嵐の説によると、いくら一人で不平を並べたって通るものじゃないそうだ。(中略)山嵐は might is right という英語を引いて説論を加えたが、何だか要領を得ないから、聞き返してみたら強者の權利と云う意味だそうだ(第4章)

학교에서의 당직의 사례를 들어 불공평한 이른바 ‘강자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평등한 권리의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쓰메 소세키는 앞의 논문 제2절 ‘교사의 개량’에서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학교 교원은 귀중한 존재인데, 겨우 연봉 300엔 만으로 급여해 주면서도 조금 마한 틈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연봉에서 감하려고 하고, 게다가 교원의 학문이 천박하다고 하거나 덕행(德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그와 함께 교무(教務)에 관한 업무를 잘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실로 무리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중략) 일본의 교육을 위하여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교원의 자격을 엄하게 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적은 봉급을 증액(増額)하여 일생 동안 교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여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증액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한다면 중학교개량책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중략)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다.

貴重なる中学教員に僅三百円位の年給を与へ以も隙さへあらば之を削減せんとしながら其學問の淺薄其德行の不修且其教務の擧らざるを責む其に無理なりといふべし(中略)日本の教育の爲めに計るに一方にては教員の資格を以て無能の徒を退去せしめ一方にては之が俸給を増額して且つ終身官たらしめ安んじて力を教育に専らしむべし若し金額の出廻らなしといはば改良の策なしといはんのみ(中略)教育を受ざる内は完全なる人間の名を下し難し⁶⁰⁾

중학교 교원은 귀중한 존재인데, 겨우 연봉 300엔 만으로 급여해 주면서도 조금 마한 틈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연봉에서 감하려고 하고, 게다가 교원의 학문이 천박하다고 하거나 덕행(德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그와 함께 교무(教務)에 관한 업무를 잘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실로 무리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사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도 극히 적은 월급으로는 자신의 교직에 충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들의 대우에 있어서도 여러 방도의 개선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육성해 주는 교원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하에, 나쓰메 소세키는 교원들의 급여문제에 대한 처우 개선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급여 문제는 나쓰메 소세키 자신의 금전관⁶¹⁾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가 40세였던 1907년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 입사했을 때 여러 가지 세평들이 있었다. 당시 문명개혁의

60) 위의 책, pp.59-60.

61) 夏目漱石(1966), 『夏目漱石全集』(第11卷), 岩波書店, pp.493~495.

상징적인 존재였던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이라는 학교는 그 학교를 졸업하는 것 자체로 출세가 보장되었던 시대였다.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일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동경제국대학 영문과 교수가 신문사에 입사하여 초라한 전속 신문 소설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고액의 연봉 800만엔을 지급했던 대학이라는 학교가 별로 없었던 그 당시에, 교수는 ‘소설가보다는 훨씬 지위가 높았던’ 시대였다.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원의 자격을 엄하게 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게 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적절한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일생 동안 안심하여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급여에 대하여 증액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한다면 중학개량책은 없다’고 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그의 주장은 그로부터 14년 후에 집필된 『도련님』에 그대로 나타난다. 시고쿠 지방의 마쓰야마 중학교에 첫 부임으로 간 주인공인 ‘나(おれ)’는 교직에 대한 기대나 흥미를 전혀 가지지 않지만 월급이 적다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작품 속에서, 도련님이 학교에 부임해 갔을 때, 각 교사들 앞에서 그의 임용장인 사령(辭令)을 일일이 보이도록 권위적으로 무리한 명령을 내린다. 교장은 도련님에게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학교의 사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학문 이외에 개인의 덕화(德化)를 펼치지 않고서는 교육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요구하자, 도련님은 무턱대고 도가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교장의 요구에 대해 부임 첫 날 도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만다. 도련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월급 40엔을 받고 이렇게 멀고 먼 시골까지 올까?’라고 내심으로 반발하며, ‘도저히 교장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임명장을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자, 교장은 ‘지금의 것은 단지 희망일 뿐이오’라고 곧 말머리를 돌리고 만다.

제8장에서는 박봉에 허덕이던 君子같은 영어교사 가지꼬투리의 모친이 학교 당국에 증봉(增俸)을 의뢰하자, 교감 빨간셔츠는 증봉을 구실삼아 연적(煙敵) 가지꼬투리를 낫선 벽지 학교로 추방하고 만다. 교육의 황폐는 투자 부족에도 주요인이 있음을 일찍부터 통감하고 있던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에서 주인공을 통하여 5회씩이나 ‘월급 40엔’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에의 투자를 늘려야 하며 교사들의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이 강하게 배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긍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전적인 측면이 아닌 교원들의 복지나 사명감, 교직의 보람,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등에 관한 개량안도 언급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학생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이미지는 『중학개량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도덕의 개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학생들의 도덕성의 개선에 관해서 보면, 최근의 소년소녀들이나 어린이들을 보고 놀라운 것은 도의심(道義心)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략)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는 더욱 험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내가 학창시절의 동료들은 얼마든지 한시(漢詩)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도 중국풍(中國風)의 기질이랄까 혹은 무사풍(武士風)의 기질이 조금씩은 남아 있었지만, 최근의 중학생들은 교육계통의 상황 때문인지 이른바 ‘한서(漢書)를 읽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도덕상의 근본적인 교육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렸다고 추측된다.(중략)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기노시타 선생이 처음으로 제일고등중학교(현재 동경대학교양학부에 상당)의 교감이 되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을 때, 사회의 풍속이 흠으려져 있음을 우려하여 ‘제군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것은 정말로 교사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성적을 잘 받으려고 교사를 존경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生徒道徳の改良、方今の少年子弟を見て驚くは其徳義心に乏しき事なり(中略)大學の學生を以て半分以上箚にも奉にもかゝらぬいたづら者とのみ思ひしが世の中にはまだ々甚しき難物あるを見出し大に教育の大切なるを覺れり尤も余輩時代の書生は幾分か漢子を専修したるもの故知らず々の間に支那風又は武士風の氣象が少しは鈍れども現今の中学生徒杯は其教育系統の情況にていわゆる漢書講讀時期なるものを有せざるが如し従つて道徳上の根本は甚だ覺束なからんと推察せらる (中略) 先年木下広次氏始めて第一高等中学教頭となりし時生徒を聚めて一場の演舌に其風儀の亂れたるを慨し諸君が教師を尊敬するは真に教師を尊敬するにあらずして点數の爲に之を尊敬するに過ぎずと云はれたるは生徒の歪風をうがてるの言なり⁶²⁾

학생들은 덕이나 의리와 같은 것을 구하는 마음인 도의심(道義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덕상의 근본적인 교육은 매우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렸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것은 본심에서가 아니라, 성적을 잘 받으려고 교사를 존경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예의 없음’이나 ‘흡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서나 흡연을 일삼는 행위’ 등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광제(匡濟)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덕망이 높은 연배를 초청하여 매주 1회 이상 윤리상의 강연을 열 것
年輩叢識共に高き人を聘して毎週一回倫理上の講筵を開く事⁶³⁾

62) 夏目漱石(1996), 앞의 책, p.60.

한문국어 및 일본 중국 역사는 일본인의 도덕을 견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그 점을 주의하여 수업할 때 과목의 지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도덕심을 고무하도록 주의함과 아울러 흥미를 더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漢文國語及び日本支那歴史は日本人の道徳を堅固するに必要なれば教師は其辺に注意して授業の際其科目の智識を広ぐると同時に生徒の道徳心を鼓舞する様注意し兼て興味を加へて生徒に自修の念を起さしむべし(64)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과 함께 도덕심을 고무하도록 주의해야 하고, 아울러 흥미를 더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인 교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평소 언행의 신중함과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나쓰메 소세키의 바람직한 교육상은 『도련님』의 고슴도치에게서 표출되고 있다.

교사가 수업할 때는 물론 평소 언행을 신중히 하고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한편 교육에 임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친절하게 충고해야 한다. 나는 학문의 교사가 되기만 하면 되지 도덕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교사는 아마도 자신의 내부에 이상한 점이 있든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 친절하지 못하든가 어느 쪽이겠지요. 이와 같은 교사는 하루라도 빨리 그 직에서 해고되어야 한다.

教師授業の際は勿論平生と雖ども言行を慎み自重の風を示すべし且つ教場内にあつて氣の付きたる事は親切に忠告すべし我は學問の教師なり道徳は我が関する所にあらずと澄して居るべからず然るにこゝに注意せざるは惑は自らやましき所あるか又性素親切千萬なる人なりかゝる教師は一日も早く其を職を免ずべし(65)

교사가 수업할 때는 물론 평소 언행을 신중히 하고 자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되며 주의를 줄 때에는 친절하게 충고해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인품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업할 때 그 과목의 지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심을 고무하도록 주의하고 흥미를 더하여 학생에게 스스로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학생들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함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교사는 하루라도 빨리 그 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점은 오늘날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와도 합치된다고 본다.

이 밖에도 중학교 개선 방안으로써, 선후배간의 친교(親交) 나눔이나 수업방법

63) 위의 책, pp.61-72.

64) 위의 책, pp.61-72.

65) 위의 책, pp.61-72.

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역독법(訳読法)을 익혀서 양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책의 사용법, 그리고 작문법, 암기 방법의 연습, 시험 전 날치기 학습의 지양, 체육 수업의 개량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 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한편 아무리 도련님 선생님이 교육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인격주의를 외쳐보아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배움의 본질이 인격도야보다는 실용과 연관된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해 버리는 세속성에 대해 나쓰메 소세키는 부단히 위화감을 나타내는 것을 본다. 『도련님』에서의 빨간셔츠는 호박(琥珀)으로 만든 파이프를 손에 쥐고 ‘가타카나(片仮名)의 가라비또(唐人)’의 이름을 사용하기 좋아하고 잡지 『帝國文學』을 언제나 손에 들고 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일본인의 몸뚱이에 서양인의 머리가 붙어 있는 괴물’(중학개량책)이라고 하는 덜된 지식인에 대한 비꼬미 함축되어 있다.⁶⁶⁾ 이것은 배움의 본질이 인격 수양보다는 실용으로서의 학문,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해 가는 속물성, 세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으나, 『도련님』에서의 ‘메뚜기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당한 후에 그 학생들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직원회의에서 ‘고슴도치’가 모든 교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한 내용, 즉 새로운 교사를 경멸하고, 희롱하는 따위의 경박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분해서는 학교의 위신도 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정신은 단지 학문을 배우고 형식적인 예의를 지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상함과 정직, 그리고 무사적인 용기를 배우고, 비문화적인 폭력과 같은 행동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슴도치’의 교육에 대한 주장은 나쓰메 소세키 자신의 교육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쓰메 소세키가 『중학개량책』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학교교육의 본질은 메이지 정부가 추구했던 ‘국가를 위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학생들 각 개인의 ‘고유의 재능 계발과 천부의 적성 함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교육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놀라운 식견이라 본다.

66) 竹内洋, 앞의 책, p.15.

2. 『우견수칙(愚見數則)』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

『도련님』의 주 무대가 된 시고쿠의 마쓰야마 중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나쓰메 소세키가 1895년(메이지 28) 11월 25일 마쓰야마 중학교의 교우회 잡지 『보혜회잡지(保惠会雑誌)』에 기고한 『우견수칙』이란 제목의 글에도 그의 교육관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의 학생은 가방을 둘러메고 사방을 여행하며, ‘저 분이라면’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려고 했다. 따라서 부형보다도 선생님을 더 존경하였다. 선생님도 제자를 대할 때는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처럼 대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교육을 행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 여관처럼 여겨, 돈을 내고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기는데 지나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여 싫어지면 여관을 옮겨버린다.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장은 여관의 주인과 같고, 교사는 잡역을 담당하는 반토멧치(番頭丁稚)⁶⁷⁾가 되어 버린 것과 같다.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장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손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반토멧치는 더욱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오만해 지고 교원들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昔しの書生は、笈を負ひて四方に遊歴し、此人ならばと思ふ先生の許に落付く、故に先生を敬ふ事、父兄に過ぎたり、先生も亦弟子に對する事、真の子の如し、是ではなくては真の教育という事は出来ぬなり、今の書生は學校を旅屋の如く思ふ、金を出して暫らく逗留するに過ぎず、厭になればすぐに宿を移す、かゝる生徒に對する校長は、宿屋の主人の如く、教師は番頭丁稚なり、主人たる校長すら、時には御客の機嫌をとらねばならず況んや番頭丁稚をや、(中略)生徒の増長し教員の下落するは当前の事なり⁶⁸⁾

위 글을 집필하기 한 달 전인 10월 16일 마쓰야마 중학교에서는 스미타(住田) 교장을 배척하는 학생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었는데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 동경제대 출신에다 명문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 후의 東京高等師範學校) 영어축탁교사직을 사직하고 온 ‘거물 교사’답게 부임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교내 잡지에 학교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형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부모처럼 역시 자신의 자녀처럼 학생들을 대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참다운 교육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건시대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고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여 교육이 행해지므로

67) 일본 가족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좌위(座位)에 의한 친자 관계라는 점이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고 후계자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넨와케(暖簾分け)’라는 것이 생겼다. 노넨와케는 주인이 종업원을 독립시켜 주는 상관습을 말한다. 종업원이 처음 점포에 들어가 멧치(丁稚/말단 점원), 테다이(手代/중간 관리자)를 거쳐 가장 높은 직급인 반토(番頭)에 이르면, 오랜 근무 기간으로 능력이나 업적 면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분가시켜 주는 제도이다.

68) 夏目漱石(1995), 앞의 책, pp.3-4.

스승과 제자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학문이 곧 인격형성을 위한 수단이었으니 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비판은 그로부터 1세기가 경과한 현재도 제기되고 있으니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학교라는 서양식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제관계를 맺고 교육 내용도 세분화되어 분담 지도하게 되므로 사제간에 인격의 교류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지식이나 기술만을 주고받는 것이 주가 되었으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해지고 따라서 무력한 교사에 방종 하는 학생이라는 교육의 부재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나쓰메 소세키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로부터 1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도련님』 제6장에서 수학교사 ‘고슴도치’의 입을 통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판하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우견수칙』에는 “이상은 식견에서 나오며, 식견은 학문에서 나온다. 학문을 해서 인간이 고양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무학(無學)으로 있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심장한 잠언(箴言)이 깔려 있다.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인격주의적 교육관을 보여주며 『도련님』에서 도련님 선생도 이를 표방하고 있다.

『도련님』의 제4장에는 학교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버젓이 꿀탕 먹이는 짓을 하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면서 걸치레나 뻔뻔스러움보다는 내면이 고상함을 가진 진정한 교육받은 사람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실려 있다.

학교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뒤에서 속닥속닥 건방진 장난을 하고는, 버젓이 졸업만 하면 교육을 받았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녀석들과 상대한다는 것이 율화가 터질 노릇이므로, “너희들이 말하지 않겠다면, 나도 듣지 않겠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의젓한 일과 비열한 짓의 구별도 못하다니 불쌍한 놈들이다.”하고 여섯 명을 내몰아 버렸다. 나는 말이나 모양새가 그렇게 점잖은 편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이들보다 훨씬 고상하다. 여섯 놈을 유유히 물러갔다. 걸치레만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인다. 걸으로 침착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내게는 도저히 이만한 뻔뻔스런 뱃심은 없다.

学校へ入って、嘘をついて、誤魔化して、陰でこせこせ生意気な悪いいたずらをして、そうして大きな面で卒業すれば教育を受たもんだと勘違いをして居やがる。話せない雑兵だ。おれはこんな腐った了見の奴等と談判するのは胸糞が悪るいから、「そんなに云われなきや、聞かなくていい。中学校へは行って、上品も下品も區別が出来ないのは氣の毒なものだ」と云って六人を逐つ放してやった。おれは言葉や様子こそあまり上品じゃないが、心はこいつらよりも遙かに上品なつもりだ。六人は悠々と引き揚げた。上部だけは教師のおれよりよっぽどえらく見える。実は落ち付いているだけなお悪るい。おれには到底これほどの度胸はない。(第4章)

실용으로서의 학문,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해 가는 속물성, 세속성이 서구로부터 유입된 제도로서의 교육의 개념이라면 일본의 전통적 교육보다 하등한 퇴보

된 개념의 교육인 것이다. 무조건적 서구 추종이 종전의 더 좋은 가치를 버리고 하위의 가치를 수용하고자 법석대는 역사적 아이러니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우견수칙』의 내용 중에서 『도련님』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관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품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多勢を恃んで一人を馬鹿にする勿れ。)⁶⁹⁾

오늘날 학교 현장의 학생들끼리는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도련님』 제3장에 표현되어 있는 부임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튀김국수사건’, ‘경단(團子)사건’ 등과 제4장에 전개되는 ‘메뚜기사건’ ‘합성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학생들이 신임 교사인 주인공을 ‘이지매’(집단 괴롭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수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괴롭혀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큰 사건으로 비화시켜 과장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좋은 쪽에서 해석한다면 학생들의 애교로 생각해서 학생들과 더욱더 가까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련님은 너무 민감하고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처럼 흥분하고 자기가 당한 피해의식은 참을 수 없어 한다.

『도련님』 제10장에는 승전을 축하하는 기념식 장면이 나온다. 승전 기념일에 중학교와 사범학교와의 싸움이 있었다. 학생들을 말리려고 고슴도치와 함께 끼어든 것이 화근이었다. 말리려고 한 싸움이 커지면서 싸움으로 변해 버렸다. 나중에 경찰들이 들어닥쳐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신문에 까지 교사의 잘못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학생들이 도련님을 보는 시선은 달라지게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황이 싸움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지만, 학생들이 보기에는 두 선생을 자기들과의 입장에서 같은 생각이 라는 것에 선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학생들에게는 선생이 정의롭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둘째로, 작은 피를 쓰거나 권모술수를 쓰지 말라.(小智を用る勿れ、權謀を逞ふる勿れ。)⁷⁰⁾

속물들처럼 교활하거나 권모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얇은 지식이라는 뜻의 ‘소지(小智)’라 함은 이른바 ‘소도세공(小刀細工)’를 뜻하며 속물들의 대표적인 근성이다. 이들은 대체로 교활하고 비겁하며 위선적인 철면피들이며 권모술수에

69) 위의 책, p.5.

70) 위의 책, p.6.

능한 이기주의자들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이들을 ‘소인(小人)’이라 일컫고 사갈(蛇蝎)만큼이나 혐오하였다.

나쓰메 소세키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련님』 10장에서 위선적이며 교활한 근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메뚜기사건에 대하여 학생이 사과를 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교장에게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장사치가 머리만 숙이고 교활한 짓은 그대로 하는 것과 같이, 학생도 사죄는 하지만 다시 장난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모두 이 학생과 같은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사과를 하든지 빌든지 할 때, 진짜로 여겨서 용서해 주면 너무 정직한 바보라고 할 것이다. 사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이니까, 용서도 거짓으로 해주면 된다. 만약 정말로 사과를 받을 생각이면, 본인이 진짜 후회할 때까지 체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나쓰메 소세키다운 예리한 지적으로 경탄을 자아낸다. 『도련님』은 이와 같은 나쓰메 소세키의 건전한 비판 정신에서 탄생된 작품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작중의 교감 ‘빨간셔츠’는 이기주의적인 소인의 전형이지만,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유능한 교육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또 ‘가지꼬투리’를 동정하여 자기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의한(正義漢) 수학 교사 ‘고슴도치’를 함정에 빠뜨려 사직을 강요하여 면직시킨다. 교감 ‘빨간셔츠’를 처음부터 혐오해 오던 주인공은 ‘고슴도치’와 더불어 게이샤(芸者)와 동침하고 나오는 ‘빨간셔츠’와 ‘알랑쇠’를 ‘천주(天誅)’라는 이름을 빌어 달걀과 주먹으로 구타하고 비난한다. 그렇지만 그런 속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학교에서 태연히 집무할 것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희생된 것은 도련님과 고슴도치, 가지꼬투리이다.

앞의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련님』에서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을 통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이니 어린애 수작이니 바보 같다느니 하면서 경멸한다.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눈을 질끈 감고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법이라든가 사람을 믿지 않는 피라든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술책 같은 것을 가르치는 편이 세상을 위해서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의 학교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덕성 교육을 소홀히 하여 가치관이 전도되어 가고 있는 교육 현장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2세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소행은 ‘거짓말하는 법이라든가 사람을 믿지 않는 피라든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술책’을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의 열매는 독과(毒果)가 되어 일본

인 자신들을 파멸케 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민족을, 더 나아가 전 인류를 고난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참화를 재발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도련님』에서의 교감 빨간셔츠가 바로 이 사실을 실연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격 도야 없는 지식이나 기술은 국가나 사회나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나면 뛰어 날수록 더욱 더 큰 해독을 끼치고 있음을 굴욕적인 식민지 통치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중군위안부문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어처구니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독도사건’ 같은 것이 이런 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셋째로, 인품을 보아라. 금시계만을 보지 말라. 겉치레의 양복만 보지 말라(人を観よ。金時計を観る勿れ、洋服を観る勿れ。)⁷¹⁾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그 자체의 사람됨을 볼 것이며 그의 금력(金力)이나 지위·권력 등의 외양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능력 위주의 근대사회에서 금력이나 권력이 없는 자는 소외되고 도덕은 패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는 치열한 투쟁의 장일뿐 결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それから』에서도 주인공 다이스케(代助)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정신의 곤비와 신체의 쇠약이라는 것은 불행을 동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의 패퇴도 함께 수반한다. 일본의 어느 곳이든지 찾아보아도 빛나고 있는 단면은 한 구석도 없지 않는가 말이다. 모조리 암흑이다.

精神の困憊と、身体の衰弱とは不幸にして伴ってゐる。のみならず、道徳の敗退も一所に来てゐる。日本國中何所を見し渡たつて、輝いてる断面は一村四方も無いぢやないか。悉く暗黒だ。(第6章)⁷²⁾

나쓰메 소세키는 이와 같이 먹구름이 덮인 것 같은 메이지 말엽의 사회에 하나의 가로등 역할을 하려고 하였다. 그는 참다운 인간상으로 『도련님』의 ‘기요(清)’나 ‘가지꼬투리’를 통하여 그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지극히 비타산적이며 불의에 대항할 투쟁력도 가지지 못한 착한 사람(善人)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무능자로서 근대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이러한 인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우대받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본 것이다.

71) 위의 책, p.6.

72) 夏目漱石, 『それから』, 第6章.

넷째로, 위세를 부리지도 말고 아첨하지 말라.(威張る勿れ、諂ふ勿れ。)73)

상대방에게 잘난 척 위세를 부리지도 말고, 상대방이 기분 좋게 아첨을 해서도 안 된다. 나쓰메 소세키는 좋아하고 미워하는 호오(好郡)의 감정이 뚜렷하지만, 총명하고 순한 성격이며 정직을 신조로 하였고, 매우 서민적이며 겸손한 성품이었음을 그의 수많은 서간(書簡)이나 ‘목요회(木曜會)’ 모여든 수많은 제자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소설 외에도 수필이나 하이쿠(俳句)에도 조예(造詣)가 깊었다. 그의 소설은 매우 신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풍부한데, 사생활에서도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배 문인들을 매우 아끼고 후배들도 그를 존경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목요회(木曜會)라는 모임을 열었고, 동양적 정신인 선(禪)에 심취하였으며 비정(非情)의 세계인 즉천거사(則天去私)를 표방하였다. 목요회 모임에서는 뛰어난 작가와 평론가들이74) 여럿 배출되었다.

‘위세부리(威張る)’는 힘 있는 속물들의 대표적인 근성이기도한데, 그는 특히 금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자들을 혐오했다. 그러한 마음의 본질이 작품 『도련님』에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아첨(諂ふ)하는’ 것은 나쓰메 소세키가 가장 혐오한 행위 중의 하나로 ‘알랑쇠’가 그 상징이다. 『도련님』 제6장에서 주인공 도련님은 ‘알랑쇠는 정말 싫다. 이런 녀석은 큰 뱀들을 달아서 바닷 속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도리이다’라고 있을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 허물이 없는 ‘가지꼬투리’나 ‘고슴도치’가 추출당하는 교육계 현실에서는 ‘알랑쇠’와 같이 처신하지 않으면 언제 실직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알랑쇠’의 처신술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결국 교육의 민주화·자율화 없이는 올바른 인격을 갖춘 교사가 소신 있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아첨과 위선과 권모에 능한 자만이 남게 되어, 학교는 인격도 야는 교사하고 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이른바 ‘학원화’가 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련님』에 나타난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은 결국 11년 전의 『우견수칙』에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정직의 심볼인 『도련님』에서의 주인공 도련님은 정직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소외되고 만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 정직을 고수하지 않는 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입으며, 괴로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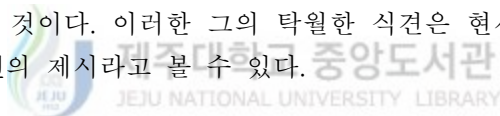
73) 夏目漱石(1995), 앞의 책, p.6.

74) 小宮豊隆, 森田草平, 鈴木三重吉, 寺田寅彦, 安倍能成, 和辻哲郎, 阿部次郎, 芥川竜之介, 久米正雄 등

는 비극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쓰메 소세키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나쓰메 소세키의 『중학개량책』의 내용과 『우견수칙』의 잠언(箴言)⁷⁵⁾들이 그대로 『도련님』의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선적인 교육자에 의한 위선적인 교육은 동류(同類)를 양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교육은 올바른 인격을 갖춘 참다운 교육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육(智育) 못지않게 덕육(德育)을 중시해야 하며 덕육의 핵은 ‘정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의 본질은 메이지 정부가 추구했던 ‘국가를 위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학생들 각 개인의 ‘고유의 재능 계발과 천부의 적성 함양’에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나쓰메 소세키가 『도련님』, 『중학개량책』, 『우견수칙』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의 교육관은 요약하자면, 교육의 본질은 지육과 함께 덕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계발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인격을 갖춘 참다운 교육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인격주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탁월한 식견은 현시점에서 볼 때에도 매우 유용한 교육 비전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75) 夏目漱石(1995), 앞의 책, pp.3-9.

V. 결 론

지금까지 나쓰메 소세키의 텍스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던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의 본질을 고찰하였으며, 나쓰메 소세키의 교육관이 『도련님』, 『중학개량책』, 『우견수칙』의 텍스트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교육정책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고양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서구의 실용주의와 교육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봉건적 유교윤리를 강조함으로써 형식주의에 치우친 교육자들과 학생들, 새로운 신교육을 배운 젊은 교사들과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급격한 서구화에 따른 실용주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에 따른 이기주의나 출세주의 등의 병폐를 고발하는 비판적 인식이 그의 텍스트 전반에 걸쳐서 표출되고 있다.

『도련님』에 등장하는 교사들을 긍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과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인격사회 지향’의 교사들은 정직과 의리, 도의적인 인간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도련님은 신경질적이고 성급한 판단을 잘 내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직성과 솔직함을 우선하여 정의감에 불타는 순진한 교사이다. 그러나 나쓰메 소세키 자신이 고백했듯이 교사로서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사의 자질 면에 있어서도 교육애가 부족하고, 사명감도 없어 바람직한 교사상은 아니다. ‘메뚜기사건’ ‘수학문제사건’ ‘튀김국수사건’ 등 에피소드가 발생할 때마다 학생들을 ‘하등동물’로 취급하면서 그저 나쁘다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확실히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어리고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교사 자질 부족이라는 문제와 연관되게 만들어 아쉬운 감이 든다.

부정적인 이미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이기주의적인 ‘이익사회 지향’의 교사들은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는 위선자로 표리부동하다. 표면상으로 항상 교육자다운 모습과 말투를 하고 있지만 간사하고 위선적이며, 임기응변의 처세술이 뛰어난 권력지향의 인물들로 근대문명이 탄생시킨 ‘부도덕’을 상징하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 그 자신이 혐오하는 인간의 구체적 유형을 드러내었다. 『도련님』의 등장인물은 나쓰메 소세키의 내면세계에 있는 일관된 교육철학인 도덕적 정직성의 외현화였다. 그리고 다가 올 일본의 미래 교육을 전망하고 교육계에 처방을 내린 것이 바로 정직함으로 무장한 『도련님』의 주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도리와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원했으

며, 정직하고 참다운 용기를 가진 도련님이나 고슴도치, 비폭력적인 가지꼬투리 같은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때 올바른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등 동물’이라고 까지 할 정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장난꾸러기 내지는 말썽꾸러기들이다. 교사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자신들의 놀림감의 대상으로 삼아 업신여기며 도덕성이 결여된 학생들이라는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가 추구하는 학생상에 반하는 학생들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도련님』이 학교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고 청소년들의 애독서임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비교육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련님 같은 유형의 인물은 복잡한 사회에는 원만하게 생존하기 어려운 인물로서, 학생에 대한 심한 증오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무절제한 행동’ ‘교사의 권위실추’ ‘폭력의 정당화’ ‘비인간적인 이기주의’ 등의 문제는 오늘날 ‘형식주의’ ‘교내폭력’ ‘집단괴롭힘’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쓰메 소세키는 『중학개량책』 및 『우견수칙』이라는 텍스트에서도 자신의 교육관을 핵심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교육은 국가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학습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잠재 능력을 계발하며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그의 교육관은 『도련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개인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지육(智育)에 편중되어 있으며, 덕육(德育)은 ‘국가에 충성심과 상급자에 대한 복종심’을 기르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인격자보다는 유능한 자를 대우하게 되고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금력을 쥐려는 이기주의적인 세태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원의 처우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음을 본다.

결국 나쓰메 소세키는 서구로부터 유입된 학교교육제도가 실용으로서의 학문, 도구로서의 학문으로 전락하여 속물성, 세속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전통적 교육보다 퇴보된 하등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나쓰메 소세키는 학생들의 정직성과 잠재 능력을 발휘시키고 학교 구성원 서로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주의적 교육이 실현되어 즐겁게 배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공동체의 이상(理想)을 전망함으로써 현시점에서 볼 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전집]

- ちくま文庫, 『夏目漱石全集2』, 筑摩書房, 2002.
芥川竜之介全集刊行会, 『芥川竜之介全集』, 岩波書店, 1979.
磯田光一, 『漱石文芸論集』, 岩波書店, 1986.
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第16巻)』, 岩波書店, 1995.
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第26巻)』, 岩波書店, 1996.

[단행본]

1. 한국어 문헌

- 고영자, 『20세기 일본문학태동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
고재석·김환기·옴김, 中村光夫, 『일본메이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權赫建, 『일본근대작가의 이해』, 學士院, 1997.
權赫建 編輯, 『창간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文學研究』, 제이앤씨, 2001.
김석자, 『현대일본문학100선』,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김태준·노영희역, 加藤周一, 『日本文学序説1,2』, 시사일본어사, 2000.
김채수역, 鈴木貞美, 『일본의 문학개념』, 보고서, 2001.
나쓰메 소세키 지음, 정치훈 옴김, 『坊っちゃん』, 하서, 2003.
박유하옴김, 柄谷行人著,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3.
朴春日,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송태옥옴김, 가라타니코오진 외 지음, 『현대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양문송 옴김, 후쿠자와 유키치 지음, 『학문을 권함』, 일송미디어, 2004.
유상희, 『나쓰메 소세키 연구』, 보고서, 2001.
曹榮錫,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세계』, 보고서, 2001.
鄭寅汶, 『日本近·現代作家研究』, J&C, 2002.
———, 『일본근대문학사의 재인식』, 도서출판영한, 2001.
하가토요류 지음, 손순옥 옴김, 『명치유신과 일본인』, 도서출판 예하, 1989.
韓國日本学会編, 『日本文学の理解』, 시사일본어사, 2001.
한영혜·정진성, 『일본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9.

2. 일본어 문헌

- 吉田精一, 『芥川竜之介II』, 櫻楓社, 1981.
柄谷行人 外, 『漱石をよむ』, 岩波書店, 1995.
相原和邦, 『日本の近代文学(第1巻)』, 有精堂, 1982.

- 三好行雄 外編, 『講座 夏目漱石(第5卷)』, 『漱石の知的空間』, 有斐閣, 1981.
- 三好行雄編, 『夏目漱石事典』, 学灯社, 1999.
- 小宮豊隆, 『夏目漱石全集第二卷-坊ちゃん解説』, 岩波書店, 1981.
- 小坂晋, 『漱石の愛と文学』, 講談社, 1974.
- 石井和夫 編, 『spirit 夏目漱石』, 『作家と作品』, 1987.
- 松元寛, 『漱石の実験』, 朝文社, 1993.
- 漱沼茂樹, 『別冊国文学(5)-夏目漱石必攜』, 学灯社, 1980.
-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漱石;世界文明と漱石』, 学灯社, 2006.
- 日本近代文学館編, 『日本近代文学大事典(全6巻)』, 講談社, 1977.
- 平岡敏夫, 『坊ちゃん試論』, 初出文学, 1971.
- 夏目漱石, 『坊ちゃん』, 講談社, 1991.

[논문]

- 金鸞姬, 아쿠타가와와(芥川竜之介) 연구 -他者/他者性を 중심으로-, 中央大学校大学院 博士学位論文, 2003.
- , “夏目漱石의 『坊ちゃん論』-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2000.
- 金活蘭, ‘明治三十九年の学校小説に関する考察-『破戒』, 『坊ちゃん』, 『雲天は才である』主人公の教育觀の比較分析-’, 慶熙大学校大学院碩士學位論文, 1999.
- 夫伯, “夏目漱石의 教育觀 考察”, 韓國國語教育研究会論文集4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3.
- 柳相熙, 『도련님』을 통한 漱石의 教育觀 研究. 日語日文学研究9, 1986.
- 柳在淵, ‘開高健의 『裸の王様』論’, 韓國日本文化学会, 1999.
- 윤상인, “<나쓰메 신화>와 문명비평-미화와 은폐의 구조”, 『역사 비평 48호』, 1999.
- 張南瑚, “夏目漱石의 작품속의 여성-『坊ちゃん』의 清(きよ)를 중심으로-夏目漱石研究”,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정현숙,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메이지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 洪承姬, 『夏目漱石의 作品속에 나타난 教師像』, 中央大学校教育大学院, 1996.
- 황호철, “漱石의 學歷을 통해본 日本近代教育 一考察”, 日本語文学 7, 韓國日本語文学会, 1999.
- , ‘夏目漱石의 초기작품 「坊ちゃん」 一考察;教育者로서의 ‘坊ちゃん’을 중심으로 해서-’ 漢陽女子專門大論文集 16, 漢陽女子專門大學, 1993.

«Abstract»

A Study on Natsume Soseki's view of education

- Focused on *Botjjang*, “Junghakgeryangchek”, “Ugyunsuchik” -

Kim, Dae-Seo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Nan-Hee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the educational policy which was showed in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system which had an influence on the text of Natsume Soseki directly or indirectly in Meiji Age and to illuminate how Natsume Soseki's view of education is expressed in the text of *Botjjang*(1906), “Junghakgeryangchek”(1892) and “Ugyunsuchik”(1895).

In this research I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ideology and system, the social background and so on in Meiji Age. The educational policy in Meiji Age inspired people with the spirit of patriotism,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 to enrich the country and strengthen the military and also accepted the educational policy of Western pragmatic lines positively. Consequently Natsume Soseki showed critical attitude which prosecuted fatal influences of egoism or success attention to follow the modernization through his whole text.

I analyzed the teachers who appeared in *Botjjang* into two kinds of those; one is ‘the moral society-oriented’ teachers who are classified as positive image group and the other is the ‘profits society-oriented’ teachers who are classified as negative image group. The ‘the moral society-oriented’ teachers think that honesty, the sense of duty and moral personality is very important. Otherwise the selfish ‘profits society-oriented’ teachers are considered as hypocrites who emphasize the formal ways they are symbolic of ‘immorality’ born in the Modern civilization. Because they are power-oriented people who have hypocrisy, slyness and the secret of success in life.

Especially ‘Botjjang’, the hero of the text, had demerits which were too nervous and quick-tempered, but he was honest and frank basically and had a strong sense of justice, pure and simple teacher. As Natsume Soseki confessed himself, however, ‘Botjjang’ was not a desirable teacher because he didn't know what he had to do as a teacher and was in the lack of the educational mind in the side of the qualification for a teacher. Also he didn't have a sense

of duty. However, Natsume Soseki showed the human type he hated concretely through 'Botjjang', the hero and other characters in the text. And furthermore he had a view of coming Japanese education for the future and suggested a prescription for the educational world of Japan, I suppose.

On the other hand, I couldn't see the images that students respected their teachers or studied hard listening to their teachers in the text. For example, the image of students who was in the lack of moral sense stood out in bold relief through various episodes of 'The Grasshopper Happening', 'Fried Noodle Happening' and 'Math Problem Happening'. Natsume Soseki criticized toward the students' uneducational behavior against students' desirable image.

And I analyzed the text of "Junghakgeryangchek" and "Ugyunsuchik" closely and more in depth. I could confirm that his view of education in these texts was well-expressed in *Botjjang*. Namely, he thought that education was to improve learner's own talent and ability and to cultivate moral character. This text said that personal potential development, the essence of education, was neglected and the intellectual education was preponderant in education system. And also the moral education was coherent as a means of his loyalty for the country and obedience to his superior. Owing to this tendency, a man of ability treated better than a man of character in our society. Therefore, criticizing our selfish society which tried to struggle for the power and money by fair means or foul. He insisted that we have to prepare for the improvement of teacher conditions in many ways as a precondition to make the hope of education come true.

After all, Natsume Soseki criticized that the school educational system from the Western countries exhibited snobbery because it fell down practical learning or studies as a tool. He thought that the essence of education contained not only the intellectual education but also the moral education and it had to cultivate students' talents and potential power. To make these come true, he emphasized that the school education was accomplished by moral educators and moral education was taught on the base of respect and trus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t this point he presented very useful educational vision with his outstanding discernment, I think.